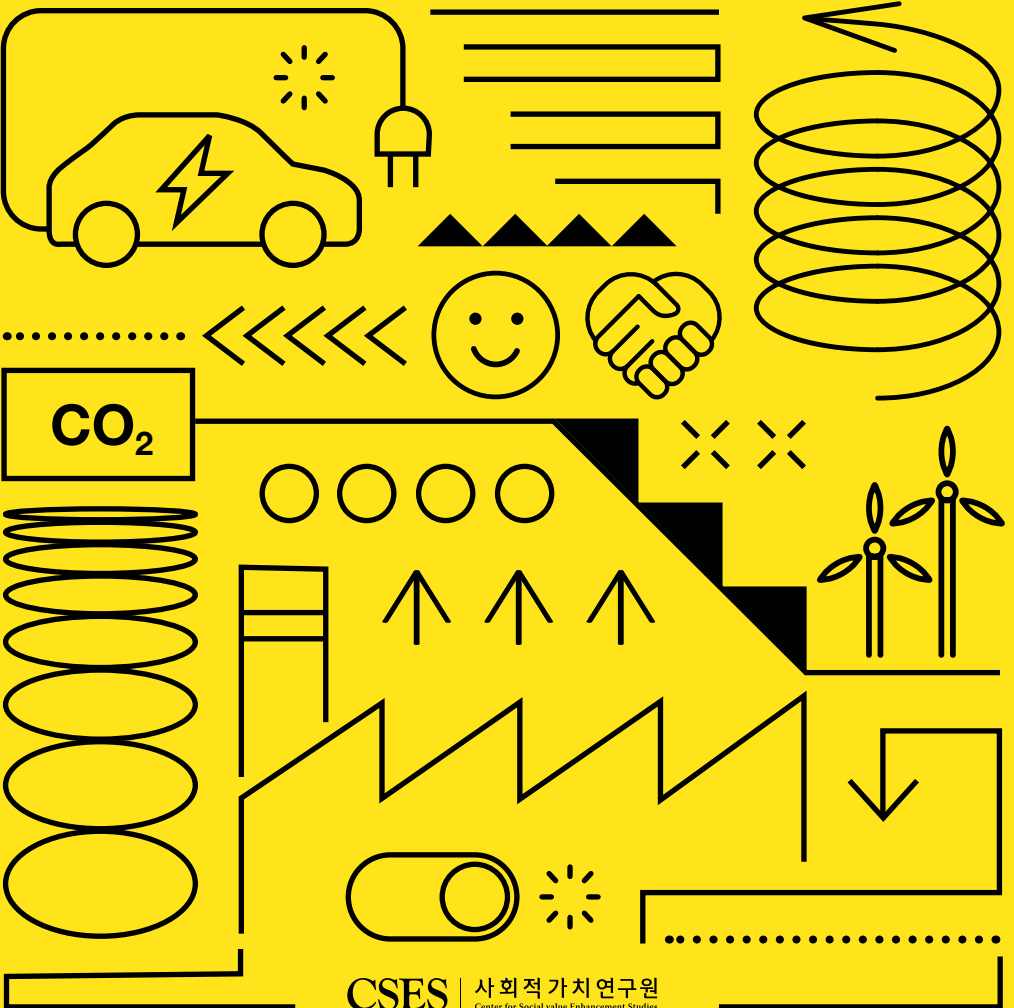




공정전환 플레이북

넷제로의 '보이지 않는 청구서'

JUST TRANSITION
PLAY BOOK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은 SK에서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연구, 사회문제와 사회적 가치 학술연구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팩트온

임팩트온(IMPACT ON)은 2020년 창간한 ESG 및 지속가능경영 전문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ESG뉴스 속보와 심층분석을 매일 제공하며, ESG 뉴스클리핑, 지속가능경영 트렌드 및 정책 연구사업, ESG Event Report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공정전환 플레이북

JUST TRANSITION
PLAY BOOK

넷제로의 '보이지 않는 청구서'

Contents

INTRODUCTION

머리말_ 공정전환 가이드북을 펴내며

PART 1

기후가 가져온 산업전환과 일자리 빅뱅 - 공정전환 이해하기

1	공정전환의 개념과 의미	010
2	공정전환, 왜 지금 이슈인가	012
3	공정전환 History	015
4	글로벌 공정전환 정책 동향	017
4-1	UN	018
4-2	유럽연합(EU)	019
4-2	미국	021
5	국내 공정전환 정책 동향	024
5-1	중앙정부 중심 법안 및 정책	024
5-2	지방자치단체별 공정전환 정책 및 전략	028
6	글로벌 공정전환 기금	032
6-1	정부기금	032
6-2	민간기금	035

PART 2

사라지는 일자리, 생겨나는 일자리 - 공정전환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 전략

1	공정전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국제노동기구(ILO) 공정전환 가이드라인	040
2	공정전환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 글로벌 기업 Best Practice 11	042
2-1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수립 및 전략 로드맵 구축 - 에니(Eni), SSE	046
2-2	내부 임직원 직무 전환 및 조직 Restructuring - RWE, 에넬(Enel)	054
2-3	공급망 협력 업체 지원 -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EDF	058
2-4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New Model 제시	063
	- 에퀴노르(Equinor), 이베르드롤라(Iberdrola), 마라톤 퍼트롤리엄(Marathon Petroleum), 오리진 에너지(Origin Energy) 서던 컴퍼니(Southern Company)	

PART 3

공정전환, 기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

1	Background: 한국의 공정전환 현황	078
2	공정전환 이해관계자별 체크리스트	082
	- 노동자, 지역사회, 정부, 투자자, 협력업체	
3	공정전환 직무별 To Do List	088
	- 재무, 대관, 인사, 법무, 마케팅, 조달, 영업 및 고객지원	

부록

공정전환 글로벌 주요 이니셔티브 및 기관	108
------------------------	-----

머리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세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문제, 산업의 혁신, 그리고 사회적 요구사항 등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의 현실을 계속해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공정전환의 시대입니다.

6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이란 무엇일까요? 기후변화로 인해 산업군이 변화해 사회, 지역, 기업들이 일자리와 생계에 영향을 받을 때, 그들에게 공정한 보상, 재직 또는 교육 기회,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안전하게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정전환의 목표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이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생소한 공정전환에 대해 논의해야 할까요? 이것은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페플라스틱 기업들은 생산보다 재활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기업은 인적자원의 문제가 생기고 근로자는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며 사라지고 지역사회는 기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경영 구루 피터드러커는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변화의 선두에서 공정전환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플레이북을 제작했습니다. 공정전환의 의미와 중요성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해관계자 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파트 1. 기후가 가져온 산업전환과 일자리 빅뱅 - 공정전환 이해하기'에서는 공정전환의 본질을 살펴보고,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내외 공정전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사회의 대응 방향성을 발견합니다.

‘파트 2. 사라지는 일자리, 생겨나는 일자리 - 공정전환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 전략’에서는 공정전환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 공정전환을 주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탐색합니다.

‘파트 3. 공정전환, 기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에서는 실무에 도움되는 지침을 제안합니다. 공정전환 이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해관계자를 구분하고 이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각 이해관계자별 이행 지침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 내 공정전환 이행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가 필수적인 만큼 C-level 에서의 논의점들과 직무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7

우리는 종종 주목하지 않았던 문제가 추후, 큰 비용과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래에서 온 보이지 않는 청구서는 이미 우리 모두의 곁에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 책을 통해, 공정전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도구와 지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 나석권

P A R T 1

기후가 가져온 산업전환과 일자리 빅뱅

공정전환 이해하기

1

공정전환의 개념과 의미

2

공정전환, 왜 지금 이슈인가

3

공정전환 History

4

글로벌 공정전환 정책 동향

5

국내 공정전환 정책 동향

6

글로벌 공정전환 기금

기후가 가져온 산업전환과 일자리 빅뱅

공정전환 이해하기

1

공정전환의 개념과 의미

10

1913년 포드자동차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장 내부를 물 흐르듯 연결하는 컨베이어 옆에서 노동자들이 순서대로 부품을 조립하는 생산방식은 2,100달러이던 자동차 가격을 290달러까지 떨어뜨렸다. 자동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모두가 좋을 수는 없었다. 마차를 끌던 마부들은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197개 회원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전 세계 에너지 전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산업전환에는 필연적으로 비용, 불편, 실직 등 부정적인 요소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정의로운 전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1}는 공정전환의 목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에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 탄소 경제에 의존하던 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공정전환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없이는 실현하기 어렵다.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경제체제가 더 싸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전환으로 발생하는 혜택과 부담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파리협정 실현은 요원한 목표다. 2050년 탄소중립 사회는 전 인류 78억 명에게 공동으로 주어 진 숙제인 셈이다.

또한 공정전환은 국제 문서 및 협약에서 공식 언급된 글로벌 의제다. 2015년에 채택된 파리협정은 공정전환을 기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전환 과정에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부터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일자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공정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제노동조합연맹(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앞두고 '죽은 지구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슬

로건을 내걸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참석하는 각국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2022년 11월 15일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국가는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화석연료 생산국과 광물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라며, 이들을 위한 '공정한 저탄소 전환(Just low carbon transi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와 2050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2021년 9월 24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일 2023년 7월 10일)됐다. 공정전환의 개념을 법에 명시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2023년 10월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행일 2024년 4월 25일)하여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 문제를 진단,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2015 파리협정(조약 제2315호)에 포함된 공정전환

당사국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영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략) 국가적으로 정의된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노동력의 공정한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무를 고려한다.

공정전환, 왜 지금 이슈인가

2023년 10월은 미국 자동차산업 역사에 유례없는 사건이 일어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디트로이트 '빅3'에 해당하는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3곳의 노조원들이 동시 파업을 했기 때문이다. 노조를 설립한 지 8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회사 3곳 총인력의 27%인 노조원 4만 명의 동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벌인 것이다.

이 기록적인 파업의 밑바탕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있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조원들의 저항이 파업의 핵심 이유다. 반면, 회사 측은 테슬라 등 선두 기업과 뒤늦게 전기차 경쟁을 하느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명예퇴직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산업전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정전환을 둘러싼 전 세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차이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실행에 나서면서, 이러한 산업전환의 이면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전환 과정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움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즉 공정전환에 관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 자동차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만 신규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 계획에 합의했다. 그런데 독일은 2023년 3월 최종 합의를 앞두고, 몇 주일 동안 비토(Veto,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유럽연합(EU)은 이퓨얼(E-fuel, 합성연료)을 사용한 내연기관 자동차는 금지 조치에서 예외 처리했다. 독일이 비토권을 행사한 배경에는 자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독일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경쟁에서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에 밀린 상황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최대한 유지해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또한 "갑자기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면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져 경제가 연쇄 타격을 입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폭스바겐은 15년간 지켜온 중국 자동차 시장 1위 타이틀을 중국 전기차 회사 비야디(BYD)에 빼앗겼고, 점유율도 3년 만에 23.6%에서 19.1%로 줄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G7 중에서 유일하게 독일만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2의 넷제로'로서 공정전환의 중요성 부각

공정전환은 '제2의 넷제로'라고 부를 만큼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때문에 공정전환은 글로벌 논의 테이블에서 탄소중립과 함께 반드시 등장하고 있다.

2015년 전 세계 신기후 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이 채택될 당시에도, 전문에 '노동력의 공정한 전환'이 포함됐고, 2018년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는 공정전환 규정을 기본으로 한 '실레지아 선언(Solidarity and Just Transition Silesia Declaration)'이 채택됐다.

2020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와 회원사들이 '공정전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 그에 앞서 유니레버, 오토테스크, 오스테드, 에벨 등 기업 27곳이 '공정한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2023년 7월 22일 열린 G20 에너지 전환 실무 그룹(Energy Transition Working Group)에서는 에너지 전환에서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2 2023년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공정전환 작업 프로그램'을 논의 안건에 포함시켰다.

공정전환이 에너지 전환을 요구받는 탄소 고배출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여겨지면서, 글로벌 투자자 그룹도 이를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60조 달러(약 7경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운용사(615개)들이 모인 세계 최대 투자자 그룹인 CA100+(Climate Action 100+)이다. CA100+는 파리협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공정전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공정전환 지표를 개발, 기업의 넷제로 이행 평가에 이 지표를 포함시켰다.

2022년 CA100+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기업 중 탄소 고배출 기업 166개를 평가한 결과, 73%의 기업이 공정전환 베타 지표에 미달,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지표를 하나 이상 충족하는 기업은 27%였는데, 이 중 75%가 넷제로 이행에 있어 공정전환 조치의 필요성을 공식화하는 인정(Acknowledgement)을 충족하고 있었다. 기업의 25%는 인정을 넘어 약속(Commitment), 참여(Engagement), 조치(Action)에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탈탄소 속도와 규모에 맞는 전환은 아직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또한 2018년 <공정전환: 투자자를 위한 5대 액션 분야(The just transition: five action areas for investors)>라는 보고서*3를 통해, ▲투자 전략에 공정전환을 고려 ▲공정전환에 대한 기업 참여를 독려 ▲자본 배분 시 공정전환과 같은 사회적 지표 통합 ▲공정전환 정책 지지 선언 및 파트너십 체결 ▲공정전환 학습 및 모니터링 등을 요구했다.

한국 사회의 공정전환, 그 맥락과 움직임

우리나라의 공정전환은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각각 전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서서히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린피스가 대규모로 실시한 국내 자동차산업 공정전환 관련 리서치에 따르면, 해당 산업의 직간접 고용 인원은 약 190만 명(2018년 기준)으로, 국내 총고용 인원의 7.1%를 차지하고 있다.*4 직접 고용 인원이 36만 3,000명으로, 완성차업체가 9만 9,000명, 자동차 부품업체가 26만 4,000명에 달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 1만 대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인력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38% 수준에 불과하다. 엔진, 변속기, 연료탱크 등 전기차에는 필요 없는 부품 생산과 관련한 일자리의 감소는 볼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생산 라인이 단순화되고, 생산직 직원도 대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동차 업종, 석유화학 업종, 반도체 업종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파른 부분부터 시작해, 산업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의 공정전환 준비 상황을 보면, 탄소중립 및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환은 진행이 잘되고 있지만 공정전환은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H사는 기존 화학에너지 중심 사업에서 '수소 대전환' 선언에 따른 신성장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 90%를 사모펀드에 매

각했다. H사는 블루 수소, 화이트 바이오, 친환경 화학 소재 사업을 3대 미래사업으로 정하고, 2030년 까지 이 사업의 영업이익 비중을 70%로 높일 계획이다. 경영진은 해당 자회사가 현재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향후에는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내부 문제를 야기했다. 직원들은 이미 매각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부 임직원들은 매각 전부터 회사에 투명성과 신뢰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는 묵살되었고 결국 다수의 직원이 퇴사했다. 산업전환에 맞추어 수소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소통의 부재로 많은 인력 자산을 잃은 것이다.

이처럼 넷제로, 탄소중립 시대에 펼쳐질 산업전환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은 공정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 자산을 쌓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업의 특정 부서의 역할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진이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준비한 유럽과 미국조차도 공정전환의 과정은 쉽지 않다.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이해관계자마다 해당되는 이슈가 제각각 다르며, 해법 또한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단, 공통점은 있다. 늦게 준비하면 할수록 기업이 지불해야 할 ‘보이지 않는 미래 청구서’ 또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 * 02 UNEP - “G20 underlines importance of a just,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 03 LSE - Climate change and the just transition - A guide for investor action (2018).
- 04 그린피스 -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 연구> (2021).

3 공정전환 History

공정전환의 개념은 러브 커널(Love Canal) 사건이라 부르는 미국의 환경 재난에서 태동했다. 1920년대부터 화학 폐기물 매립지로 사용하던 러브 커널 지역에서 암 발병, 기형아 출생 등 주민의 건강 악화가 지속되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 매립지 인근 주민을 이주시킨 것이다.

미국 정부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1980년 슈퍼펀드 제도를 마련하고, 환경 규제 강화에 나섰다. 규제로 인해 화학산업이 위축되자 1993년 미국 석유·화학·원자력노조(OCAW, Oil, Chemical and Atomic Workers International Union)는 “오염된 토양을 위한 슈퍼펀드가 있다면,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도 있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퇴직 및 이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사회 전체가 고르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 정부는 그런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러한 개념을 정리해 1990년대 이후 공정전환을 공식 용어로 채택했다. 1997년에는 시민 단체, 사회 및 환경운동단체, 노동 친화적인 정당 등이 모여 ‘공정전환연맹(JTA, Just Transition Alliance)’을 설립했다.

국제사회로 공정전환 개념이 확산된 것은 2000년대 이후다.

200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 Programme), 국제사용자기구(IO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국제노동조합연맹(ITUC)과 함께 <녹색일자리(Green Jobs: Towa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 보고서를 발간,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장했다. 2015년에는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지침(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을 발표, 공정전환을 위한 7가지 이행 원칙을 제시했다.

같은 해 12월, 파리협정 이후로 공정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2018년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의 ‘실레지아 선언’ 채택,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 주도의 ‘기후 행동 일자리(Climate Action for Jobs)’ 이니셔티브가 발표됐다.

한편 유럽연합(EU)은 2020년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서 공정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을 명시했다.

이후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유럽연합(EU), 영국,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은 공정전환 선언(Just Transition Declaration)에 서명, “탄소중립(Net-zero) 및 기후 회복탄력성의 미래로 전환하는 데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선언에는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새로운 일자리 지원,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촉진, 개발도상국의 전환 지원, 특정 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의 전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같은 해 세계은행은 ‘모두를 위한 공정전환 이니셔티브(Just Transition for All)’를 창설, 개발도상국의 공정전환 지원을 공식화했다.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는 유럽연합(E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공정전환 파빌리언(Just Transition Pavilion)’을 개장, 공정전환과 관련된 회의, 행사, 지식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연도	주요 내용
1970년 ~19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재난을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슈퍼펀드 제도를 입법화하자 미국 석유·화학·원자력노조가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 ● 1990년대 중반부터 이를 '공정전환'이라고 명명, 공정전환연맹 결성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노동기구(ILO), 유엔환경계획(UNEP)이 <녹색일자리>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 강조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노동기구(ILO) 2013년 '지속 가능한 발전, 양질의 일자리, 녹색일자리와 관련한 공정전환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노동기구 공정전환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 발행 ● 파리협정 전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은 '죽은 지구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참석한 각국 정부에 공정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 7, 8, 13 등)에 포함되면서 전 세계적 약속으로 명시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 파리협정의 공정전환 규정을 기본으로 한 연대 강조. 연대와 공정한 전환에 관한 실레지아 선언 채택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그린딜의 '공정전환 메커니즘' 공식화, 2027년까지 1,700억 달러 동원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영국,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16개국은 '공정전환 선언' 채택 ● 세계은행 '모두를 위한 공정전환 이니셔티브' 창설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유럽연합(E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정전환 이행을 위한 '공정전환 파빌리언' 출범

4
글로벌 공정전환 정책 동향

글로벌 공정전환 주요 정책			
기관	정책	출범 시기	특징
UN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Global Accelerator)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악화되던 세계의 소득 불안, 빈곤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기후 위기로 인한 지속 가능성 위기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및 인간 중심의 녹색 회복 도모가 주요 목적
EU	공정전환 메커니즘 (Just Transition Mechanism)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전환으로 인해 쇠퇴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지원 강화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가 특징
미국	오바마 정부 - 파워 이니셔티브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산업전환으로 인해 쇠퇴하는 석탄산업 의존 지역사회의 경제개발 및 노동자 지원에 초점. 지원 분야는 인력개발, 지역 경제개발, 노동자 건강 지원 등
	바이든 정부 -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연방정부 최초이자 최대 환경정의 프로그램 ● 기후 투자 혜택의 40%를 기후 피해 지역 및 소외계층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특징

4-1. UN

글로벌 액셀러레이터(2021) 출범

UN은 기후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심화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9월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Global Accelerator)를 출범시켰다. 정식 명칭은 '공정전환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 보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Global Accelerator on Jobs and Social Protection for Just Transitions*5)'이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및 목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는 4년간 6억 달러(약 7,965억 원)의 예산을 투입, 기술 지원 시설(TSF, Technical Support Facility)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활동 전반에 전략 및 운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전문 인력 파견,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자금조달, 기존 프로젝트의 조정과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는 기후 위기로 촉발된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기아,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불평등한 디지털 접근성, 돌봄 경제 등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 해결 지원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일자리 400만 개 창출, 사각지대에 놓인 40억 명의 어려움 해소 등이 목표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친환경 회복(Human-centred Green Recovery), 기후 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공조 및 투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는 ①공정전환 정책 및 전략 개발 ②정책 및 전략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과 자원 확보 ③다자간 협력 강화라는 3개의 중심축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전환 정책 및 전략 개발

정책 및 전략 개발은 개발도상국의 공정전환을 위한 선제적 과제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비하다. 공정전환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낮은 인식, 지식수준 및 자금조달 역량과 전문적인 민관 협력관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인증 시스템 등 전반적인 사회적 인프라도 부족하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국의 거시경제와 사회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인 방향성은 녹색경제, 순환 경제, 디지털경제 등 미래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보호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 및 건강 개선 정책 등이다. 여기에는 노동시장 선순환을 위한 인재 양성 시스템, 지속 가능한 노동 구조의 설계 및 규제,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프레임워크 구축과 자원 확보

정책 및 전략이 수립됐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는 개발금융, 기후 금융, 인도주의 금융 등 국내외 여러 재원을 조정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 국가 자금조달 프레임워크(INFF, Integrated National Financing Framework)는 이를 위한 대표적인 도구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다른 재원을 모으고 우선순위에 맞는 개발 목표를 도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자원 동원은 국내 공공자원 및 국내외 민간 금융의 조달, 국제 개발 협력 등을 상호 보완해가며 추진한다. 특히 차이 형태의 자원 조달은 프로그램 참여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채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한다.

다자간 협력 강화

다자간 협력관계 조성은 국가 및 국제적 약속의 효력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통 대상으로는 국가정책 입안자, 공적개발원조(ODA) 제공 국가, UN 기구, 국제통화기금(IMF), 다자개발은행(MDB), 사회적 파트너, 시민사회, 학계 등이 있다.

다자간 협력관계 강화는 다음 3가지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 차원의 부처 간 및 다중 이해관계자 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적 구조 강화 ▲개발 및 금융지원의 조정과 국제금융 기구의 참여 전략 ▲기존 동맹 및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또는 지역 차원의 연합 구축이다.

4-2. 유럽연합(EU)

유럽 그린딜, 공정전환 메커니즘(2020) 채택

2019년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유럽 그린딜은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 친화적 사회·경제 회복 프로그램이자 투자 패키지다.

2020년 1월 EU는 '유럽 그린딜 투자 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발표하고, 3월 그린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인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제정했다. 5월에는 그린딜 관련 정책을 제시, 공정전환 메커니즘을 공식 정책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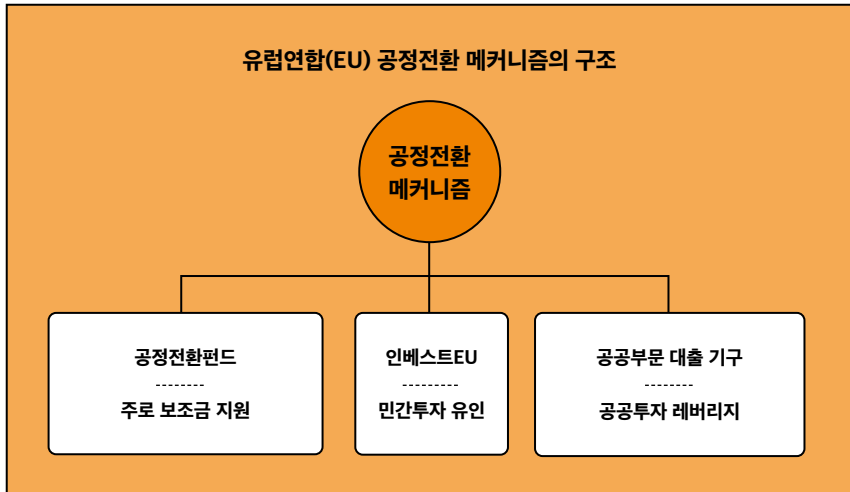
공정전환이 유럽연합(EU)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2015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의 수익을 공정전환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 허용했다. 2017년에는 석탄 지역 산업전환에 대한 대책 논의 및 교류를 위한 석탄 지역 전환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Coal Regions in Transition)가 만들어졌다.

2018년에는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전환 지방자치단체장 포럼(Forum of Mayors on Just Transition)을 구성해 전환을 위한 유럽연합(EU) 차원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차원의 공정전환 관련 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동안 유럽 내 석탄 지역의 쇠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2020년 1월,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추진을 위한 유럽 그린딜 투자 계획 및 공정전환 메커니즘을 정식 발표하게 된다.

공정전환 메커니즘의 구조

공정전환 메커니즘*6은 '누구도 뒤처지도록 남겨두지 않는다'는 기초하에 전환 대상이 되는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2021~2027년까지 최소 1,000억 유로(약 142조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향후 10년간 공정전환 메커니즘에 약 1,430억 유로(약 204조 원)의 재원이 동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정전환 메커니즘은 공정전환펀드(Just Transition Fund), 인베스트EU(InvestEU), 공공부문 대출 기구(Public Sector Loan Facility)의 3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재원은 유럽연합(EU) 예산, 회원국의 공동 자금조달,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의 자금 등으로 조성된다.



지원을 받고 싶은 지역은 공정전환 계획을 수립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환 계획에는 2030년까지 광산 폐쇄, 석탄 생산 감산 로드맵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전환 메커니즘은 전환 계획서 수립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공정전환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지역 주민, 근로자, 기업 등 영향을 받는 모든 주체의 사회적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환 계획서를 받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전환 대상 지역의 규모, 후속 고용을 위한 재숙련의 필요성, 회원국의 경제 수준 및 투자 능력 등을 고려해 기금 사용처를 결정,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유럽연합(EU)의 요구 조건에 미달할 경우, 매년 지역별로 배당된 예산의 50% 삭감, 차액은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 타 지역으로 할당된다. 기금 사용처 또한 제한된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해체, 담배 관련 산업, 화석연료 관련 투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지원 등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지역별 공정전환 계획 작성 요구 사항

- 국가 수준의 전환 단계에 대한 로드맵
- 전환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
- 이 지역들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평가(일자리 상실, 지역발전 목표와 수요 등)
-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전환 기금이 만들어내는 기여 방안에 대한 설명
- 국가 수준의 전환 계획과 공정전환 기금 지원의 일치성 평가
- 계획의 실행,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설명
- 기금 운영 방안 설명
- 중소기업 외 지원에 포함시키려는 기업이 있을 경우, 포함시켜야 할 기업의 목록과 지원 근거 제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정 활동에 투자하는 경우, 이 투자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 제시
- 제시된 계획과 유럽연합(EU)의 공정전환 메커니즘 및 관련 프로그램의 시너지

4-3. 미국

오바마 정부, 파워 이니셔티브(POWER Initiatives, 2015)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공정전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한 유럽연합(EU)과 달리, 미국 연방정부의 관심은 비교적 미흡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 전환으로 쇠퇴해가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10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파워플러스 계획(POWER+Plan, Partnerships for Opportunity and Workforce and Economic Revitalization + Plan)을 제안했다. 이것은 ▲석탄 지역 경제 다변화 및 일자리 창출 ▲건강 및 은퇴 보장 ▲탄광 매립 및 재개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 4가지 주요 목표가 중심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었다.

그러나 파워플러스 계획은 의회의 반대 및 정권교체로, 2015년 연방정부 차원의 파워 이니셔티브(POWER Initiatives)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데 그쳤다. 파워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에너지 전환으로 석탄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사회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다. 주로 애팔래치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애팔래치아 지역은 미국 동부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북쪽 뉴욕주, 남쪽 미시시피주와 앨라배마주 등을 아우르는 산맥 지역으로, 주로 석탄을 채굴한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석탄산업이 침체되면서 빈곤 수준과 유아사망률이 높아지고 기대수명은 낮아지는 등 지역이 쇠락해갔다. 이에 애팔래치아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파워 이니셔티브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자산 개발, 인력 양성, 커뮤니티 활성화, 건강관리 등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구축을 위한 239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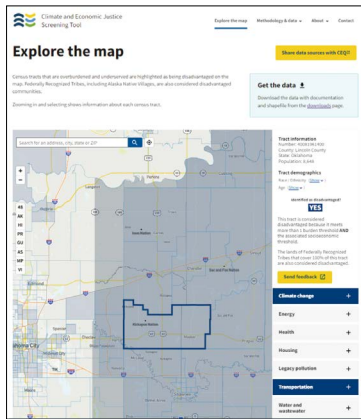
바이든 정부,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2021)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연방정부 최초이자 최대 환경정의 프로그램인 저스티스40(Justice40)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기후 피해 지역 및 소외계층에 연방 기후 투자 혜택의 40%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2021년 7월, 바이든 행정부는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가 지원하는 총 21개의 연방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주요 투자 부문은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대중교통,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교육 및 인력개발, 기존 오염의 개선 및 감소, 청정 상하수도 인프라 개발 등 총 7개다.

이후 연방정부는 2021년 11월 공포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일명 초당적 인프라법에서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를 주요 요소 중 하나로 명시하고, 50개주 4,300개 이상의 사업에 1,100억 달러(약 149조 4,9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할당했다.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의 특징 중 하나는 기후 소외 지역 선별을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2022년 2월 백악관 환경위원회는 '기후 및 경제정의 선별 도구(CEJST, Climate and Economic Justice Screening Tool)'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미국 전역에 걸친 데이터를 분석,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의 투자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 및 경제정의 선별 도구는 출시 이후 피드백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기후 및 경제정의 선별 도구 홈페이지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공개한 기관*8으로는 육군 공병단(Army Corps of Engineers),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공사(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산하 아메리코 봉사단(AmeriCorps),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애팔래치아 지역 위원회(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 등이 있다(2023년 9월 기준).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의 시범 프로그램 사례 예시

기관	프로그램
애플래치아 지역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워 이니셔티브(오바마 행정부 때 출범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때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로 합쳐짐)
국토안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 완화 지원 프로그램 ● 탄력적인 인프라 및 커뮤니티 구축
에너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관측 지원 ● 태양열에너지 기술 사무소(국가 커뮤니티 태양열 파트너십) ● 차량 기술 사무소(깨끗한 도시들) ● 환경 관리 ● 첨단 제조 사무소(산업평가센터)
내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및 버스 시설 인프라 투자 ● 저배출·무배출 차량 지원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의 식수 지원 펀드 ● 주정부의 깨끗한 물 지원 펀드 ● 브라운필드(갈색발, 오염된 토양의 복구) ● 슈퍼펀드 구제 ● 경유 배출 저감 실천 프로그램 식수 내 납 저감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환경보건과학원 환경 경력자 양성 ● 저소득자 주택 에너지 지원
주택도시개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 위해성 감소 및 가정 건강 보조금
농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농촌 에너지 지원

출처 안예현·윤은주·박종화·김은하·홍나은,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ies for Vulnerable Regions Affected by the Transition to Net Zero)》 (2022) p.81

- * 05 ILO - 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 (2015).
- 06 대한상공회의소 -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SGI 브리프> 제3호 (2022), <https://hwaseongcci.korcham.net/front/boardlink/boardlinkContentsView.do?boardId=7&contId=3724&menuId=5105>
- 07 에너지경제연구원 - <주요국의 정책 비교를 통한 국내 석탄화력발전 부문 공정전환 추진 방향 연구> (2022).
- 08 White House - "Justice40 A WHOLE-OF-GOVERNMENT INITIATIVE"; - <https://www.krihs.re.kr/publica/reportView.es?mid=a10102000000&num=000003639176>

국내 공정전환 정책 동향

5-1. 중앙정부 중심 법안 및 정책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과 정의로운 전환*9

국내 공정전환은 2021년 9월 환경부 소관으로 제정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시작된다.

탄소중립기본법 내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문 살펴보기

조문	주요 내용
목적(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
정의(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기본 원칙(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로운 전환 실현 오염자 부담의 원칙 구현 노력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계획 포함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 구성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로운 전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될 수 있어야 함
정의로운 전환 이행 방안(제47조~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정의로운 전환 지원 센터 설립 정의로운 전환 특별 지구 지정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전환 지원 자산 손실 위험 최소화 등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의 8가지 기본 원칙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명명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저스트 트랜지션(Just Transition)을 원문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기본법이라는 특성상 공정전환의 포괄적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언급은 부족한 편이지만, 국가 비전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체계를 법제화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조문에서 주목할 점은 공정전환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해당 조문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정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등 국내 공정전환 움직임을 선도하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23)과 정부의 일자리 손실 지원

환경부 소관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내 공정전환의 초석이라면, 2023년 10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통과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노동 전환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평가 결과 지원이 시급한 산업일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계획도 세우게 된다. 국내 공정전환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방안

정책적으로 공정전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2021년 7월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방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지원 방안은 빠른 시일 내 노동 전환 발생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분야를 지목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노동 전환 발생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꼽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후 산업, 순환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09 국내의 공정전환은 법적인 용어가 아직 통일돼 있지 않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의 8가지 기본 원칙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산업전환’이라고 명명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방안(2021)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 화력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

<p>신산업 분야 직무 전환 훈련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 대응 특화 훈련'을 신설해 2025년까지 직무 전환 훈련 10만 명 실시 목표 ● 장기 유급휴가 직무 전환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업에 훈련 기간 중 인건비 및 훈련비 지급) ● 사업전환 과정에서 노사 협약을 통해 상생의 고용안정 조치 취할 경우 교육 훈련 시설, 통근 버스 등의 고용 환경 개선 비용 지원 ● '노사 협력형 직무 능력 향상 사업' 신설해 노사가 함께 직무 전환 훈련 설계 및 참여할 경우 훈련비 지원 ● 대기업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 및 대학이 참여하는 '노동 전환 특화 공동 훈련 센터' 신설
<p>사전 전직 준비 및 재취업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자동차 및 발전 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통해 사전 전직 수요 조사 실시해 맞춤형 훈련 과정 운영하고 저금리(1%)로 생계비 대부 지원 ●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화력발전 기업 출신의 재취업자 채용 시 기업에 채용 보조금 지급
<p>석탄 발전 및 내연기관 자동차 사업체 집중 지역 고용 위기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에 상생형 일자리, 산업단지 대개조, 녹색 융합 클러스터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별로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등의 유망 산업 육성 지원 ●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LNG 발전 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폐부지 활용 및 대체 산업 육성 방안 강구 ● 지역 내 기업 퇴출 예방을 위해 사업전환·다각화를 지원하는 '지역 산업 잠재 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 신설 ● 해당 산업 노동자의 재취업 지원 및 고용 촉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확대 추진

철강, 정유, 시멘트 등 노동 전환 지원

철강, 정유, 시멘트 등 중장기 노동 전환 수요 발생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고용정보원 내 '노동 전환 분석 센터'를 신설해 산업별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구조 전환 가속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징후 포착 시 노동 전환 지원 체계 가동
---	--

이러한 지원 방안은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전환 외에도 디지털화로 인한 산업전환을 다루는데, 이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주를 이룬다.

정부의 6개 부처(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는 이 정책을 바탕으로 2023년 약 1조 38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중 4,808억 원은 탄소중립이 아니라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 전환에 책정된 예산이다.

중앙정부 노동 전환 주요 사업 및 예산 편성

사업 분류	예산	사업 내용
직무 전환 및 전직 훈련	2,05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유급휴가 훈련(1만 명) ●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 훈련(2.5만 명)
전직 및 재취업 서비스	2,764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1.3만 명) ● 고용 촉진 장려금(3.3만 명)
디지털 역량 강화	4,80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5만 명) ● K-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훈련(2.9만 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57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전환 지원 센터(46억 원) ● 노동 전환 분석 센터(11억 원)
지역 위기 대응	69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691억 원) ● 지역 산업 잠재 위기 대응 사업(7억 원)
계	1조 385억 원	

5-2. 지방자치단체별 공정전환 정책 및 전략

2021년 5월 개최된 녹색성장 정상회의(P4G) 지방정부 특별 세션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226곳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조례에서 공정전환 관련 내용은 크게 ▲기본 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정의로운 전환 실현 ▲정의로운 전환 지원 센터 설립(특구 지정 시) ▲시·도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지방자치단체장 책무로 기후 위기 관련 정보 등의 필요 제공 ▲탄소중립위원회에 정의로운 전환 전문가 포함 등이 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모두 조례를 통해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했으며, 해당 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탄소중립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공정전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8곳으로, 강원도·경기도·경상북도·전라북도·충청북도·서울시·대구시·인천시 등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의로운 전환 지원 센터 설립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중앙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산업이 있는 광주시와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청남도는 공정전환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 지구' 선정이다. 특구로 지정 되면 해당 지역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산업·고용 위기 지역에 제공하는 실질적 고용안정 지원, 기업 자금 보조·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의로운 전환 특별 지구 지정 시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취약 지역 공정전환 지원 사업'도 있다. 2022년부터 고탄소 산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원 내용으로는 ▲정책 기획 ▲기업 컨설팅 ▲노동자 교육 훈련이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로 총 21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충청북도·경상북도 구미시·인천시·원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이 참여했다. 2023년에는 충청북도, 전라남도, 부산시, 울산시, 경상북도 의성군이 선정돼 사업을 수행했다.

광주시, 기후 위기 대응 기본 조례

광주시의 기후 위기 대응 기본 조례(2023년 9월 25일) 제38조~제45조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후 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정의로운 전환 특별 지구, 사업 전환 지원,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협동조합의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 지원 센터 설립, 지역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원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예산 책정을 통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감면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중소기업 친환경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노동자 교육 훈련 및 재취업 지원이 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한 곳은 총 12곳인데, 이 중 기금의 용도에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것은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요 용도로 명시하고 있다.*10

광역자치단체 탄소중립 기본 조례의 실질적 정의 관련 내용 포함 여부

구분	기본 원칙/ 지방자치단체(장) 책무로 정의로운 전환 실현 포함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항 (정의로운 전환 (자원) 센터 설립)	정의로운 전환 (자원) 센터 설립·운영 예산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 지구의 지정
강원도	O	O (특별 지구 지정 시)	O	X
경기도	X	O (특별 지구 지정 시)	O	O
경상남도	X	X	X	X
경상북도	O	O	O	X
전라남도	O	O (특별 지구 지정 시, 의무 규정)	X	X
전라북도	O	O (특별 지구 지정 시)	O	X
충청남도	X	X	X	X
충청북도	O	O (특별 지구 지정 시)	X	X
서울시	O	O	O	X
부산시	O	사회안전망 마련 노력 O(특별 지구 지정 시)	O	X
대구시	O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완화 지원 대책과 재난 대비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의무 규정) X	X	X

출처 황선자·이문호·임찬영, "탄소중립 기본 조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노동과희망>,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p.111*11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5대 전략 및 30대 과제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기본 조례에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및 훈련 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위원회 구성과 기금 설치다. 지방자치단체 중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충청남도가 유일하며, 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는 기후변화대응기금과 별도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 지역 내 전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주요 용도는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지역 영향 분석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한 사업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 복지 등을 위한 사업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발전 설비 및 부지의 해체,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이다.

충남연구원은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정책 동향 및 석탄발전소 폐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의 5대 전략 및 30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¹²

울산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울산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 고용안정 울산 일자리 4.0'(2021~2025년, 총 412억 원)은 울산시와 북구, 울주군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급격한 산업전환 속도에 따라 발생할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일자리 플랫폼 퀄리티업(Quality-Up, 고용안정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고용장려금 등 고용 서비스 제공, 고용안정 거버넌스 운영), ▲내연차 일자리 밸류업(Value-Up, 자동차 부품 산업 근로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위기 산업 퇴직자 전직 지원 훈련, 내연기관 자동차 기술·사업화 지원·고용 유지·창출) ▲미래차 일자리 점프업(Jump-Up, 미래차 신산업 육성·전문 인력 양성 훈련, 미래차 창업 기업 고용 활성화 지원, 미래 모빌리티 사업화 전문 인력 고용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 10 U-LEX -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11 황선자,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기본 조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노동과희망> (2022.12.0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2 U-LEX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5대 전략 및 30대 과제(2022)

5대 전략	30개 과제
<p>산업 다양화</p>	<p>1-1 기반 시설 구축 1-2 에너지산업 육성 1-3 지역 미래산업 육성 1-4 공공기관 및 연구 기관 유치 1-5 산업전환 관련 특별 지역 지정 및 국가 공모 사업 선정 1-6 지역 공기업·공단 설립·운영</p>
<p>노동자 지원</p>	<p>2-1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2-2 일자리 분석 2-3 직업전환 및 창업 지원 2-4 사회안전망 구축 2-5 고용 위기 관련 특별 지역 및 국가 공모 사업 지정 2-6 인재 육성 프로그램</p>
<p>지역사회 지원</p>	<p>3-1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 연구소 설립 3-2 시군 단위 지역 활성화 재단 설립 3-3 충청남도 지역 전환 연구 센터 설립 3-4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확대 3-5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관리 기업 육성 3-6 에너지 전환 이익 공유 시스템 구축</p>
<p>복원 및 재생</p>	<p>4-1 환경 감시·모니터링 강화 4-2 주변 지역 건강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 4-3 전환 지역 아카이빙 구축 4-4 전환 지역 에코 뮤지엄 추진 4-5 폐부지 및 폐설비 복원·재생을 위한 제도 마련 4-6 폐부지 및 폐설비 복원·재생 시범 사업</p>
<p>추진 기반 조성</p>	<p>5-1 정의로운 전환 조례 제정 5-2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및 전담 조직 구성 5-3 정의로운 전환 자금 조성 및 녹색금융 활성화 5-4 지자체 및 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전략 수립 5-5 정의로운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업 공모 지원 5-6 전환 지역 경제위기 및 고용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p>

글로벌 공정전환 기금

재정은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전환 과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정전환을 먼저 추진한 국가나 민간기업에서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분담하고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6-1. 정부기금

6-1-1.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의 공정전환 메커니즘, 자금 지원 강화 및 이해관계자 참여가 주축

유럽연합(EU)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정전환펀드 등을 조성해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공정전환 관련 지원은 공정전환펀드, 인베스트EU, 공공부문 대출 기구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자금 지원 형태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공정전환펀드는 유럽연합(EU) 예산을 바탕으로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보조금 지급, 인베스트EU는 민간 자금을 유인하여 공정전환 관련 사업에 투자, 공공부문 대출 기구는 상업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공공 부문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한다.

6-1-2. 미국

미국, 무역자유화 피해 지원부터 산업전환 부작용 완화까지

미국에서는 1974년 무역법으로 시작한 '무역 조정 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이 공정전환과 가장 유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화와 국제무역 자유화로 인한 수입 및 해외 이주민 증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직한 노동자들을 위한 직장 재배치 수당, 일자리 교육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지원, 기술 교육, 경력 상담 등을 제공했다.

이후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청정발전계획(CPP, Clean Power Plan)이 수립되며 공정전환과 비슷한 한 개념이 태동하게 된다.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프로그램(2015)

청정발전계획(CPP)은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채취 및 사용을 줄이고자 2015년 8월 발표했다. 당시 연방정부는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탈탄소화 추진을 위해서 석탄 전환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재생에너지 투자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은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프로그램(CEIP, Clean Energy Incentive Program)을 개발, 저소득 지역사회의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고자 했다. 청정발전계획(CPP)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단의 지원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10월 이 사업은 폐지되었다.

파워 이니셔티브 기금(2015)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2월 현행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의 전신이라고 부르는 파워플러스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회의 반대 및 정권교체로 추진이 어려워지자 상무부, 중소기업청 등의 2015년 회계연도 기준 예산을 활용, 약 4,000만 달러(약 5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이 석탄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경제개발 및 노동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파워 이니셔티브다.

파워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석탄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경제개발에 있었기 때문에, 상무부 경제개발청이 전체적인 운영을 주도했다. 다만 각 기금의 수혜자는 기금 제공 기관이 별도의 조건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파워 이니셔티브 기금은 계획 기금(Planning Grants)과 이행 기금(Implementation Grants) 2가지로 나누어진다. 계획 기금은 지역의 폐부지 활용 및 경제 다변화, 기업 유치, 산업전환 등 전환 계획 수립이 목적인 반면, 이행 기금은 직업교육 센터나 비즈니스 혁신 센터의 건립, 신산업 구축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파워 이니셔티브의 기관별 금액 규모(2015년 회계연도 기준)			
기관	중점 사업	금액	활용 기금 종류
상무부 경제개발청	경제 조정 지원 및 파트너십 계획	1,500만 달러 (약 202억 원)	계획 기금, 이행 기금
노동부 직업훈련청	실업자 노동자 기금	1,000만~2,000만 달러 (약 135억~270억 원)	이행 기금
중소기업청	지역 혁신 클러스터 및 성장 가속화	300만 달러 (약 40억 원)	계획 기금
애플래치아 지역 위원회	기술지원 및 시범 사업	50만 달러 (약 7억 원)	이행 기금

출처 이상림·정성삼·허예진, <주요국 정책 비교를 통한 국내 석탄화력발전 부문 공정전환 추진 방향 연구>(2022), 에너지경제연구원, p.59.

6-1-3. 독일

독일, 탈석탄법(2020) 및 석탄지역 구조강화법(2020) 제정

독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2038년까지 발전 부문의 100% 탈석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2018년 6월 탈석탄위원회를 설립, 2020년 연방기후보호법, 탈석탄법,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했다. 이는 독일 공정전환의 기반이 된다.

탈석탄법은 독일의 탈석탄 목표,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단계별 폐지 규모 및 시기, 완공된 미가동 발전설비에 대한 결정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탈석탄법은 탈석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실업에 직면한 석탄산업 및 화력발전 업체 직원을 위한 고용 전환 지원금 규정도 포함한다. 지원금은 2038년까지 탈석탄 일정에 따라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최대 4,000명의 직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조기퇴직으로 인한 연금 감소에 대한 보상책인 셈이다.

석탄지역 구조강화법(2020)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탈석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에 따라, 2038년까지 최대 400억 유로(약 57조 원)를 탄광지역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주정부는 기금의 최소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기금은 사업 관련 인프라, 교통 및 IT 인프라, 환경보호 및 경관 보존 등에 사용 가능하다. 연방정부는 교통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연구 기관 설립을 위해 260억 유로(약 37조 원)를 지원하고, 16개 연방정부 기관의 본사 또는 지점을 탄광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소 5,000여 개의 신규 및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8월에는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에 의거해 탄광지역 지원을 위한 석탄지역투자법이 발효되었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협상을 체결해 총 140억 유로(약 20조 원)를 지원한다. 연방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재정 지원은 2038년까지 최대 260억 유로(약 37조 원) 규모다.

6-1-4. 캐나다

캐나다, 공정전환 태스크포스(2018) 설립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8년 ‘캐나다 석탄 화력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공정전환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Just Transition for Canadian Coal Power and Communities, 이하 태스크포스)’를 설립, 공정전환 추진을 본격화했다.

태스크포스는 의회, 환경단체, 노동계, 산업계, 지방정부, 학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석탄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영향에 대한 정보 수집, 전환 과정 시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문제 파악, 자금조달 방안 수립 등을 목표로 했다. 2018년 12월, 석탄화력발전 폐쇄 과정 공개 보고, 저탄소 경제 전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 연구 자금 마련, 전환 영향 지역사회에 지역 주도의 전환 센터 건립, 운영자금 조달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는 총 1억 8,500만 달러(약 2,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석탄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배정하고 ‘캐나다 석탄 전환 이니셔티브(CCTI, Canada Coal Transition Initiative)’와 ‘캐나다 석탄 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CCTI-IF, Canada Coal Transition Initiative-Infrastructure Fund)’ 2가지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2018년 11월 발표한 캐나다 석탄 전환 이니셔티브(CCTI)는 지역사회 내 기술개발과 다변화 지원을 위해 5년간 3,500만 달러(약 472억 원)를 배정했다. 2019년 발표한 캐나다 석탄 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CCTI-IF)에는 1억 5,000만 달러(약 2,026억 원)가 배정되어 석탄 화력발전 폐쇄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적 인프라 투자에 지원한다.

2021년 5월 기준, 전체 1억 8,500만 달러(약 2,500억 원) 중 2,900만 달러(약 391억 원)가 석탄산업 의존도가 높은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서스캐처원, 앨버타주의 46개 프로젝트에 투자됐다. 지원 분야는 크게 고용 지원과 지역 경제개발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6-2. 민간기금

6-2-1. EDP

에너지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A2E 펀드(2018) 조성

2018년 포르투갈 전력회사 EDP(Energias de Portugal)는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와 개발도상국을 위해 A2E(Access to Energy) 펀드를 조성했다. 교외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의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 및 지역 전체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목표다.

A2E 펀드는 에너지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5가지(▲교육 ▲건강 ▲수자원 및 농업 ▲커뮤니티 ▲지역 경제)로 분류했다. 2022년 EDP는 펀드의 연간 예산을 100만 유로(약 14억 2,000만 원)로 설정했는데, 2025년까지 2,300만 유로(약 328억 원), 2030년까지 총 3억 유로(약 4,200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초기 지원 프로젝트로는 아프리카 7개국에서 진행한 28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됐으며, 이

는 총 12만 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펀드 기금은 태양광 전력을 활용하는 온실을 건설, 학생들에게 새로운 농법을 교육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6-2-2. 오리진 에너지

지역사회 지원 위한 커뮤니티 펀드(2022) 조성

2022년 호주 전력 업체 오리진 에너지(Origin Energy)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커뮤니티 펀드를 조성했다. 규모는 500만 달러(약 67억 원)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운영하며 4가지 분야(▲공동체 웰빙 ▲공동체 회복력 ▲경제적 전환 및 다양화 ▲환경보호 및 궤적성)에 지원한다.

2023년에는 커뮤니티 투자 기금 자문위원회(커뮤니티 포럼 하위 조직) 감독하에 펀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투자 전략(Community Investment Strategy)을 수립했다. 자문위원회는 매년 2회의 투자 라운드를 통해 투자처를 심사, 평가하고 연평균 50만 달러(약 6억 7,00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5월 첫 투자 심사를 진행해 총 8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헬리콥터 구조용 호이스트(구조자를 헬기로 끌어올리는 장비) 유지 보수 장비 구입(1만 달러) ▲고등학교 학부모 및 시민 단체를 위한 야외 학습 문화공간 조성(5만 달러) ▲사우스웨이크 주식회사의 취약계층 이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식 미용실 밴 구입 등이 있다.

6-2-3. 에퀴노르

지역 사업주와 조성한 해상풍력 생태계 펀드(2022) 활용해 소외계층 지원

다국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Equinor)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와 함께 해상풍력 생태계 펀드(Offshore Wind Ecosystem Fund)를 조성, 500만 달러(약 67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 목표로는 ▲해상풍력 관련 직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층 뉴욕 시민 및 뉴욕시 주택 지원 ▲뉴욕시의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 등이 있다.

펀드 운영은 2개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전략개발위원회는 3가지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전략을 세우고, 실제 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선정위원회는 전략개발위원회의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질 대상을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체 프로젝트 중 30%는 뉴욕시에 기반을 둔 소수자 혹은 여성 소유 기업(MWDBE: Minority, Women-Owned and 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s)에 할당된다. 펀드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 만족과 동시에 청렴성 심사(IDD, Integrity Due Diligence)를 통해 에퀴노르 내부 규정 준수 여부를 통과해야 한다.

글로벌 주요 공정전환 기금

구분	지원 주체	기금명	규모	특징
정부	미국	파워 이니셔티브	4,000만 달러 (약 540억 원)	석탄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경제개발 지원이 목적. 계획 기금과 이행 기금으로 분류하고, 계획 기금은 전환 계획 수립에 배분, 이행 기금은 구체적인 사업에 배분
	유럽연합 (EU)	공정전환 펀드	175억 유로 (약 26조 원)	공정전환 메커니즘의 3가지 축 중 하나. 유럽연합(EU) 예산에서 175억 유로 조달 후 300억 유로(약 42조 원) 규모로 확대 운용할 계획
	독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400억 유로 (약 57조 원)	지원 대상이 되는 주정부가 최소 10% 자부담
	캐나다	캐나다 석탄 전환 이니셔티브 (CCTI)	3,500만 달러 (약 472억 원)	지역사회 내 기술개발과 다변화 지원
		캐나다 석탄 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CCTI-IF)	1억 5,000만 달러 (약 2,026억 원)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적 인프라 투자 지원
기업	EDP	A2E 펀드	3억 유로 (약 4,284억 원)	태양광 전력 시설 도입 등 지역사회의 청정 에너지 전환 지원
	오리진 에너지 (Origin Energy)	커뮤니티 펀드	500만 달러 (약 67억 원)	지역사회의 청정에너지 전환 및 경제적 다각화 추진
	에퀴노르 (Equinor)	해상풍력 생태계 펀드	500만 달러 (약 67억 원)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해상풍력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에너지 전환 지원

P A R T 2

사라지는 일자리, 생겨나는 일자리



공정전환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 전략

1

공정전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 국제노동기구(ILO) 공정전환 가이드라인

2

공정전환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 글로벌 기업 Best Practice 11

사라지는 일자리, 생겨나는 일자리

공정전환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 전략

1

공정전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 국제노동기구(ILO) 공정전환 가이드라인

40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업을 포함, 에너지 전환을 앞둔 조직들을 위해 2013년 '지속 가능한 발전, 양질의 일자리, 녹색일자리와 관련한 공정전환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2015년에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문가 회의를 소집, 공정전환의 시작을 위한 지침으로 <국제노동기구 공정전환 가이드라인(^{*13}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을 펴냈다.

국제노동기구(ILO) 공정전환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7가지 지침'을 제시해 공정전환의 핵심이 사회적 합의에 있음을 강조했다.

* 13 ILO - 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 (2015).

국제노동기구(ILO) 공정전환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 공정전환 가이드라인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 가능 발전의 필수 요소 4가지 의제인 ▲사회적 대화 ▲사회 보호 ▲노동권 ▲고용은 포용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함.● 각국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 모델, 도구 채택 가능함.●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일자리 창출, 일자리 개선, 사회정의, 빈곤 퇴치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음.● 정부, 고용주, 노동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p>기회 및 도전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로는 농업, 건설, 재활용, 관광 부문에서 보다 생산적인 공정과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도입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소득 개선 등이 있음. ● 도전 과제로는 경제구조 전환으로 인한 노동자 이주, 기업과 직장의 일자리 손실, 기업 및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필요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빈곤 가구의 소득 악영향 등이 있음.
<p>기본 원칙</p>	<p>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7가지 이행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 가능성의 목표와 경로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합의(Strong social consensus)가 필요함. 모든 수준에서 정책 형성과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 때, 사회적 대화가 필수 요소로 포함되어야 함. 2 모든 정책은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를 존중, 증진, 실현해야 함. 3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 때 환경과 관련된 수많은 도전과 기회에 있어 젠더(gender)적 차이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 형평성 있는 정책 결과를 증진하기 위해 특정한 젠더 정책을 입안해야 함. 4 경제, 환경, 사회, 교육과 훈련 등을 포괄하는 통일성 있는 정책을 통해 기업, 노동자, 투자자, 소비자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및 사회로 전환해야만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건을 제공해야 함. 5 통일성 있는 정책들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을 위해 모든 사람의 공정한 전환이라는 틀을 제공해야 함. 공정한 전환의 분석 틀에는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예상, 실직과 해직에 있어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보호, 직업 능력 개발, 그리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사회적 대화가 포함됨(the effective exercise of the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6 모든 경우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은 없음.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각국의 발전 단계, 경제 부문들, 기업 업종과 규모 등 각국의 특수한 조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7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함. UN의 지속 가능 발전 '리우+ 20' 회의에서 도출된 결론 문헌, 특히 6장의 '이행 수단'을 상기할 것.
<p>주요 정책 분야 및 제도적 장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추진 시에는 한 부처에만 할당하지 않고 일선 부처 정책에 공정전환 의제를 통합해 할당해야 함. ● 양질의 일자리 국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자금 및 자원을 동원해야 함. ● 노동조합, 기업 대표 등 사회적 파트너는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및 여성과 남성을 위한 녹색일자리 개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침을 제공해야 함. ● 공정전환 프레임워크를 거시경제 정책에 통합하기 위해 국제기구, 고용주 및 노동조합 단체 간의 협력을 추진해야 함. ● 지속 가능한 자금조달 메커니즘 구축,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세금, 보조금, 대출 등의 적절한 조합의 탐색과 식별 등이 필요함.

공정전환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 글로벌 기업 Best Practice 11

세계 벤치마킹 연합(WBA), 기업의 공정전환 기여도 평가 시행

공정전환의 범위는 기업 내부의 임직원부터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크게는 지역사회까지 포함한다. 기업에는 쉽지 않은 과제다. 선행 사례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벤치마킹 연합(WBA, World Benchmarking Alliance)^{*14}이 2021년 발간한 <공정전환 평가 2021(Just Transition Assessment 2021)>^{*15} 보고서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고해볼 만하다. 세계 벤치마킹 연합(WBA)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한 영향력 있는 기업 2,000여 개를 추린 대표적인 기업평가 지표 중 하나인 SDG2000을 개발한 곳이다.

이 보고서에서 세계 벤치마킹 연합(WBA)은 새롭게 개발한 공정전환 평가지표를 적용해 180여 개 기업의 공정전환 이행 수준을 평가했다. 2023년까지 약 450여 개 기업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 내 국내 기업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기업 11개를 특성에 따라 ①공정전환 프레임워크 수립 및 전략 로드맵 구축, ②내부 임직원 직무 전환 및 조직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③공급망 협력 업체 지원, ④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New Model 제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각 항목에 속한 기업들의 모범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 14 WBA - World Benchmarking Alliance Just Transition Methodology (2021).

15 WBA - Just Transition Assessment (2021).

세계 벤치마킹 연합(WBA)의 공정전환 평가 2021 Best Practice 11

분류	기업명	Case 명	Good Points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수립 및 전략 로드맵 구축	에니 (Eni)	이해관계자별 공정전환 전략 중심의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전환 4대 주요 분야 및 이해관계자별 세부 로드맵과 프레임워크 수립 ● 사람 중심을 공정전환의 주요 모토로 삼고, 별도의 공정전환 보고서 및 이해관계자 관여 보고서를 발간 ● 내부 직무 포스팅 플랫폼 Job4U, 교육 플랫폼 MyChange를 통해 2030년까지 내부 구성원의 직무 전환 추진
	SSE	공정전환을 위한 세부 원칙 지정 & 공시 프레임워크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1월 글로벌 기업 최초로 공정전환 전략 제시(5대 원칙, 20개 세부 원칙) ● 외부 이해관계자 및 내부 임직원 의견 수렴(영향 평가)을 통해 포용적 직무 전환 수행 ● 공정전환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다수의 단기계약을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
내부 임직원 직무 전환 및 조직 Restructuring	RWE	공정전환 이행 전담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팀에서 탈석탄 전담팀을 만들어서 전환 사업장 노동자협의회와 이해관계자 소통 전담 ● 공정전환에 대한 직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여 지표(engagement index) 만들어 모니터링
	에넬 (Enel)	지역 및 임직원 특성 고려한 맞춤형 재훈련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 활용, 고용 유지 정책, 맞춤형 교육 통해 화력발전 사업 부문 공정전환율 55% 달성 ●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임직원의 개인적 특성, 지식수준,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직무 전환 프로그램 제공

분류	기업명	Case 명	Good Points
공급망 협력 업체 지원	앵글로 아메리칸 (Anglo American)	현지 기업 참여를 통한 공정전환 체계 공동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역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및 수소 공급망 구축 사업 과정에서 현지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포용적인 생태계 구축 • 40억 ~90억 달러의 GDP 상승 및 1만 4,000~3만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탄광 폐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공급망 내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끼치는 영향·니즈를 파악하여 공정전환 수행
	EDF	지역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공정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을 공정전환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꼽고 재정 지원, 역량 개발 등의 집중 지원 프로그램 수행 • 중소기업을 직접 육성해 자사와 협력관계 체결(약 250여 개의 중소기업 발굴) • 프랑스 내 실업률 높은 지역을 파악한 후, 해당 지역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그 지역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신규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자본 지출을 지원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New Model 제시	에퀴노르 (Equinor)	재생에너지 대외협력팀 &지역사회 참여형 풍력 단지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주정부, 대학, 지역 내 전문가 집단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참여형 해상 풍력 사업 수행 •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15명의 지역사회 활동가로 이루어진 재생에너지 대외협력팀 구성 • 소외된 지역사회의 주민들(여성 소유 기업, 소수자, 지역 소상공인)에게 해당 프로젝트의 다양한 기회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권 제공

분류	기업명	Case 명	Good Points
	이베르드롤라 (Iberdrola)	석탄화력발전소 직원 재교육 & 지역사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혁신 플랫폼' 수립 • 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스타트업 육성, 직원 재교육, R&D 사업 인력 매칭 등의 사업 수행 • 1억 유로를 투자해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 해당 부지에 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총 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마라톤 퍼트롤리엄 (Marathon Petroleum)	지역 파트너와 커뮤니케이션 통한 공정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공정전환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와 신속히 공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지역 교육기관과 협업, 인재 양성 및 고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 비영리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 일자리 제공
	오리진 에너지 (Origin Energy)	이해관계자 책임 원칙에 따른 지역사회 관여 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만 달러 규모의 지역 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형 공정전환 추진 •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을 도출하고 각 그룹마다 별도의 책임 원칙 수립 • 지역사회 책임 원칙에 따라 주정부, 지역기업,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포럼을 구성
	서던 컴퍼니 (Southern Company)	발전소 부지 용도 변경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및 노조 협조 원칙 수립해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수행. 비자발적 퇴직 0건 • 미국 항만청, 부동산 재개발 업체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소 부지 탈바꿈 • 기존 부지에 항만 확장 및 산소 주입 시설 설치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복합문화공간 조성

2-1.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수립 및 전략 로드맵 구축 - 에니(Eni), SSE(Scottish and Southern Energy)

공정전환 추진에 있어 국내 기업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이해관계자 측면에 있다. 공급망 인권 실사 분야의 글로벌 유명 평가 기관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37개 중 이해관계자 관여 지표를 충족한 기업은 3%에 불과하다.

반면 글로벌 공정전환 모범 사례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공정전환 방법론은 이해관계자별 전략이다. 10년에 걸쳐 저탄소 업종으로의 산업전환과 직원 재배치 등을 추진해온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니(Eni)와 영국 에너지 기업 SSE가 대표적이다.

해외 사례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지역정부와의 공정전환 기금 조성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노동자 재교육 및 재배치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은 모두 이해관계자 전략에서 출발한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보고 표준 프레임워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도 공시 초반에 기업들에게 이해관계자 파악 및 관여(Engagement)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전환 전략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와 이해관계자별 공정전환 전략 사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Case Study 1

에니(Eni) - 이해관계자별 전략 중심의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수립

에니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세계 7대 정유사 중 하나로, 다양한 국가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 석유화학 정유소를 바이오연료 정제소로 전환하는 등의 석유화학 섹터 전반에 걸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시작했다.*16 대부분의 기업처럼 공정전환 전략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한 섹션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려 60페이지가량의 연간 <공정전환 보고서(Just Transition Report)>를 따로 발간할 정도다. 공정전환에 관한 프레임워크 수립, 정교한 이해관계자 관여 전략, 직원 직무 재교육 등이 매우 탁월하다*17는 평가를 받고 있다.

Good Point 1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수립

에니는 2014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포르토(Porto) 지방 정유공장을 바이오연료 정제소로 전환하는 '그린 리파이너리 프로젝트(Green Refinery Project)'에 착수했다.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이오연료로 전환하는 시작점이었다. 이 공장은 연간 21만 톤가량의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데(2020년 기준), 전환 10년을 맞는 2024년에는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 56만 톤까지 생산을 늘릴 예정이다. 항공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지속 가능 항공연료(SAF)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에너지 전환과 혁신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사례다.

에니는 프로젝트가 도입되기 2년 전부터 공정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2012년 9

월 베네치아 지역 정유공장 노동조합 대표 및 지역 사무국과 협약을 맺은 것이다. 공정전환 프로젝트의 실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일부터 공장 근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크게 4가지를 합의했는데, ▲전환 프로젝트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노동자와 회사 간의 공동 위원회 구성 ▲고용 수준 보호 ▲직원 재교육 및 직업교육 촉진 ▲정유소 폐쇄 및 전환 기간(2013~2015년) 동안 노동자 소득 보호 등이었다.

에너지는 공정전환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정전환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데 주력했다. 에너지는 '포용적 자본주의 위원회(Council for Inclusive Capitalism)'에서 제안한 공정전환 프레임워크*18를 만드는 데 참여한 기업 7개 중 하나다. 이 프레임워크는 공정전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촉진하며, 기업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①유니버설 넷제로 에너지 ②기업 내 노동력 혁신 ③지역사회 회복력 ④협업 및 투명성의 4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다시 기업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권고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에너지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① 유니버설 넷제로 에너지	② 기업 내 노동력 혁신	③ 지역사회 회복력	④ 협업 & 투명성
핵심 영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야심 찬 일정 추진 포괄적인 에너지 접근성 확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과 안전기준을 준수 다양성을 추구하고 경제적 포용력과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기반 시설을 재생 금전적 자원에 의존적인 지역발전 이니셔티브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과의 사회적 소통을 보장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의사결정과정
공정전환 관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 지지 소비자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완화하며 긍정적인 영향은 공유 책임감 있는 자산매각 전략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 배출량이 적은 인프라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고용 유지, 재교육, 재배치 실천 저탄소 정책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회 보호 조치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자의 공정전환 추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경쟁력 있는 지역 공급망 육성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예상되는 기술격차를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 제한이 있는 공정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개 여러 сек터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지닌 새로운 벤처를 확장 동종 업계 기업 및 다른 조직들과 지식 및 모범 사례를 공유

Good Point 2

**정교한 이해관계자
관계 전략 수립**

에니는 '사람 중심(People-Centered)' 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타 기업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한 이해관계자 관계 전략을 수립했다.

에니는 공정전환 보고서 이외에 추가적으로 <집중 리포트: 직원, 생산자, 지역사회, 소비자(Focus report on Just Transition Initiatives for workers, suppliers, communities and consumers)>를 따로 발간하여 각 이해관계자별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전환 요소들을 설명했다.

에니의 공정전환 보고서*19에는 직원, 소비자, 협력 업체, 지역사회 외에도 ▲국가 정부 및 유럽 연합(EU) 규제 기관 ▲대학 및 연구 기관 ▲비영리단체 및 산업 협회 ▲국제 협력 기구 ▲투자 기관 등 보다 넓은 범주의 이해관계자를 주요 카테고리에 포함시켰다. 에니는 먼저 조직 내부의 지속 가능한 관련 토픽들을 크게 ①2050 넷제로 ②업무 최적화 ③개발을 위한 협업 ④공통 토픽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별 중대 이슈를 분류하고, 아래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연 단위 주요 활동을 보고한다. ▲지역사회 에너지 매핑 ▲대학 친환경 기술 연구 지원 ▲국제기구 지역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MOU) 체결 ▲협력업체 ESG 및 친환경 전환 교육 프로그램 제공 ▲유럽연합(EU) 차원의 기업 라운드 테이블 및 정책 관여 기업연합 구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에니의 조직 내부 지속 가능성 관련 토픽 및 중대 이슈

지속 가능 관련 토픽	중대 이슈
①2050 넷제로	① 기후변화 대응
②업무 최적화	② 기업 내 인력개발 ③ 다양성, 포용 및 일과 삶의 균형 ④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⑤ 자산건전성 ⑥ 환경영향 감축 ⑦ 순환 경제 ⑧ 인권 보호 ⑨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⑩ 고객 관계 ⑪ 반부패 및 세금 전략 ⑫ (공장) 폐쇄 및 재정부
③개발을 위한 협업	⑬ 지역개발 ⑭ 에너지 접근성
④공통 토픽	⑮ 혁신 ⑯ 디지털화 및 사이버 보안

출처: Eni for 2022 A Just Transition, 15p.

에니의 이해관계자별 중대 이슈 설정 및 주요 이행 사항

분류 / 관련 중대 이슈	2022년 주요 참여 활동
에니의 직원과 국내외 노조 ① ④ ⑫ ② ③ 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전략 및 기업이 정신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 ● 모든 종류의 다양성 가치에 대한 포용과 인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환경 분석 ● 팀 빌딩·국제 모빌리티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이탈리아의 스마트 워킹 등을 해외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약 갱신
금융 커뮤니티 ① ⑥ ⑧ ⑩ 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보수에 대한 투자자 및 자문 위원과의 로드쇼 ● 분기별 실적에 대한 콘퍼런스 콜 ● 은행이 주최하는 주제별 콘퍼런스에 최고 경영진 참여 ● 콘퍼런스 참여 및 기관 투자자와 주요 ESG 평가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p>지역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기반 조직</p> <p>13 11 6 14 9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정부 및 지역 커뮤니티와 협이해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와 지역개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탐색 사회 및 인권 영향 평가를 포함한 환경영향 연구가 수행된 국가의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 지역사회의 요청 및 고충을 관리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로컬 콘텐츠 기획에 대한 워크숍 개최
<p>계약자, 공급자 및 영업 파트너</p> <p>4 1 8 2 3 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별 웨비나, 워크숍, 교육 이벤트 등에 대한 인식 제고 이니셔티브에 공급망 전반의 참여를 독려해 지속 가능성 인식을 촉진 더 많은 기업에 ESG 우선 주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인권 실사: 전체 공급망에서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위험 기반 모델의 적용 확대
<p>고객과 소비자</p> <p>16 15 6 1 7 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전환 문제 및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국 및 지역 소비자 협회의 회장, 사무총장과 에너지 관리자와의 회의 및 워크숍 지역 소비자 협회와의 지역별 회의 및 다양한 지속 가능성 주제에 대한 소비자 협회의 이니셔티브 지원 소비자,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품 인사이트, 서비스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 협회를 참여시켜 만족도, 품질 및 기업 포지셔닝을 개선 고객 중심성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결과, 목표 및 향후 전략을 소비자 협회에 발표
<p>국내 기관, 유럽연합(EU), 국제기관</p> <p>1 6 14 7 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탄소화, 농업,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와 지정학적 에너지 시나리오에 대한 지역, 국가, 유럽 및 국제기관·단체와의 공동 위원회, 회의 및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 공개 행사 및 주요 국제 포럼(G20, B20, COP27)에서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화에 대한 에니 입장 표현 국내외 그리고 유럽연합(EU) 내의 싱크 탱크·협회와의 기관 참여 및 대화 산업 플랜트, 운영 현장 및 연구 센터에 방문한 협회와 국가기관 그리고 정치 대표단에게 프로젝트 발표
<p>대학, 연구 센터, 혁신 허브</p> <p>1 15 6 13 7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화를 위한 밀라노 비코카·피사 대학교, 이탈리아 국립연구소(ENEA)와 연구 협약 체결 밀라노와 토리노의 폴리테크니코, 나폴리 대학교, 볼로냐 대학교 등의 자국 대학교와 미국 버클리 대학교 천연자원학과(CNR), MIT 등 해외 우수 대학과의 협력 활동 지속 환경 및 경제개발을 위한 4개의 공동 연구 센터를 위한 CNR와의 협력 활동 지속 (교육 협력: 루이스 대학교, IULM 대학교, 로마 트레 대학교, 피렌체 대학교) 볼로냐 대학교와 새로운 에너지 전환 기술을 위한 공동 연구소 설립 주요 국내외 혁신 허브, 혁신 브로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약에 참여
<p>자발적 지원 단체, 업계 협회</p> <p>2 7 6 4 15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GCI, IETA, WEF, IPIECA, IOGP, WBCSD,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EITI, 포용적 자본주의 위원회, 에너지 콤팩트 및 국제 인권 기관과의 협력에 가입 및 참여 지속 가능성 주제에 관한 콘퍼런스, 토론회, 이벤트 및 교육 이니셔티브, 가이드라인 개발 및 모범 사례 공유, 탄소배출권 생성 및 사용을 위한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공급망 및 에너지 주제에 대한 지역과 전문 비즈니스 협회와의 회의, 공동 입장 확인 및 탈탄소화 연구를 통한 비즈니스 라인 지원
<p>개발 협력 단체</p> <p>13 1 7 14 15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 기관과 협력·파트너십 협약을 통해 국가별 개발 활동을 통합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및 유네스코, 이탈리아개발협력기구(AICS) 등 국제 협력 기구, 시민사회단체, 민간 부문 조직과 협약 체결 유엔개발 계획(UNDP), 미국국제개발처(USAID), 세계은행, CDP, 스탠다드뱅크와 같은 금융기관, 개발 대상 국가의 보건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유지

**Good
Point 3**

**비즈니스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른
구성원 전환 지원**

에니는 '피플 저니(People Journey)'라는 슬로건 아래 임직원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성원의 전환 속도를 친환경 전환

으로 인한 비즈니스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변화에 맞추기 위함이다. 에니는 2030년까지 사업전환에 따른 구성원들의 직무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체인지(MyChange)'라는 교육 플랫폼을 신설해 친환경 직무, 지속 가능성 인식 증진, 디지털 혁신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친환경으로 확장함에 따라 400명의 관리자급 인원을 신규 편성하고, 직무 전환을 원하는 직원 4,400여 명에게 교육 및 직무 이동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내부 직무 포스팅 플랫폼 '잡포유(Job4U)'를 신설해 전환 가능한 신규 직무 및 참여 가능한 친환경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직원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관 설립도 이어졌다. 2017년에는 이탈리아 젤라(Gela) 지역의 바이오연료 정제소에 '안전교육센터(STC, Safety Training Center)'를 설립했고, 바이오연료 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재현한 5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제작, 가상현실 교육(Virtual Reality Training) 기술을 진행했다. 2018년에는 에니 기업대학(ECU: Eni Corporate University)과 협업해 사내 임직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에게까지 직무 전환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로 확장했다.

Key Takeaways

기업명	Eni
산업	에너지
설립	1953년
직원 수	3만 2,188명
매출	1,325억 유로(약 188조 원)
웹사이트	https://www.eni.com/en-IT/home.html
공시 방법	<지속 가능성 보고서>

공정전환 Key Facts

- ▶ 이탈리아 포르토 지방 정유공장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20년 친환경 바이오연료 생산량 21만 톤 달성, 2024년까지 56만 톤 달성 예정
- ▶ 사내 교육 플랫폼 통해 직무 전환 대상자 4,400여 명에게 직무 교육 및 재배치 기회 제공

공정전환 Key Points

- ▶ 공정전환 4대 주요 분야 및 이해관계자별 세부 전략과 프레임워크 수립
- ▶ 사람 중심을 공정전환의 주요 모토로 삼고, 별도의 공정전환 보고서 및 이해관계자 관여 보고서를 발간
- ▶ 내부 직무 포스팅 플랫폼 잡포유(Job4U), 교육 플랫폼 마이체인지(MyChange)를 통해 2030년까지 내부 구성원의 직무 전환 추진

SSE(Scottish and Southern Energy)

- 공정전환을 위한 세부 원칙 지정 및 공시 프레임워크 수립

SSE는 영국 전역과 아일랜드에서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기업으로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마지막 석탄발전소(Fiddler's Ferry)를 폐쇄했다. 그해 11월 글로벌 기업 최초로 공정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SSE는 최근 10년간 직원 6,685명 중 1,081명을 고탄소 업종에서 저탄소 업종으로 재배치하는 등 공정전환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2021년 '공정전환 보고서'를 발간하며 공정전환 5대 원칙과 20가지 세부 원칙을 설정했다.

Good
Point 1

5대 원칙 및
20가지 세부 원칙 설정

SSE는 사전 분석 단계에서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 특히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식별하여 공정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SSE는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원칙 5가지*20를 설정, 모든 실행의 기중점으로 삼았다.

첫째, 좋은 녹색일자리 원칙을 보면, 공정전환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일자리 지원이 핵심이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영국 생활임금재단의 최소 노동시간, 생활임금 기준 준수 등을 강조했다. 또 쇠퇴하는 갈색산업(Brown Industries,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의 인재를 유치, 녹색 전력 분야로 끌어들이고 육성하도록 경력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직원 대상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고위 책임자의 즉각적인 피드백 등 사내 비공식 채널인 '새드 보드(Shadow Boards)'를 보장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소비자 공정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송배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탈탄소화를 위해 난방 및 수송 분야에서 전력 사용량과 가격 증가에 대해 미리 고지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과 편익을 얻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정성을 위한 정책 영향 평가를 시행했다.

셋째, 신규 자산 건설 및 운영 원칙과 관련, 저탄소 전력 기반 시설의 성장과 제조업 역량 증진을 위해 정부에 인센티브 마련을 촉구했다. 또 공급망 탄소발자국 축적을 위한 방법론 개발도 강조했다. 2008년 이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커뮤니티 기금 46개를 조성했다. 풍력 단지 수명 기간 동안 매년 이익을 공유하도록 해, 2008년부터 2050년까지 최소 2억 5,000만 파운드(약 4,100억 원)를 커뮤니티에 지급할 전망이다.

넷째, 고탄소 일자리 노동자를 위한 원칙으로, SSE는 넷제로 사회를 위한 화력발전소의 목적 변경을 시행했다. SSE는 천연가스 발전은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탄소 포집이나 수소 네트워크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전환 과정에서, 고탄소 노동자들에 대한 일시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일시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직원 및 노동조합과 함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째, 전환 과정 중 지역사회 지원 원칙과 관련, 산업 설비가 위치한 부지가 폐쇄될 경우 지역

경제가 쇠퇴할 것을 우려해 기존 부지를 CCUS 및 수소 설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할 것을 구상 중이다. 이 밖에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SSE의 역사적 유산을 조사하는 유산팀을 사내에 구성, 수력발전의 역사를 전시는 문화 사업을 진행해 에너지의 역사적 중요성을 대외에 알리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Good Point 2 해상풍력 사업 진출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SSE는 공급망 내 협력사(GE, 스코틀랜드 에너지 자문 그룹, 스코틀랜드 해상풍력에너지협회)들과 함께, 해상풍력 사업으로 진출했다. 이를 통해 영국 전역에 해상풍력 발전소 10개와 함께 3,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각 사업장은 영국 전역에 퍼져 있으며, 규모에 따라 100~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창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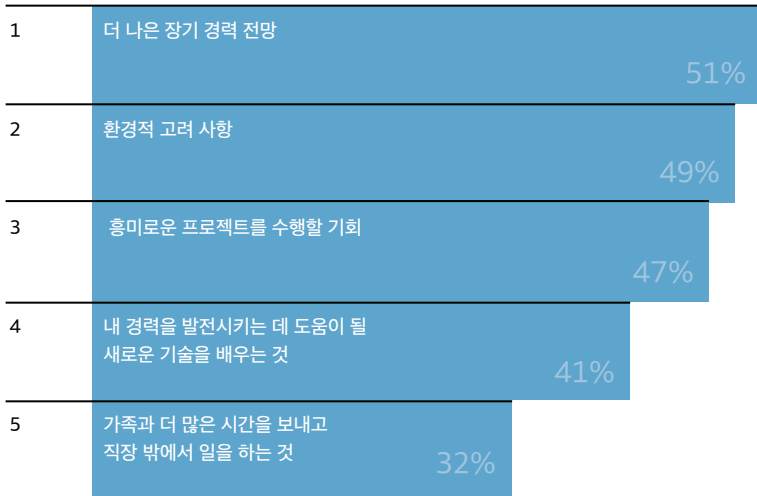
또 직업훈련을 위해 견습 프로그램, 수습 엔지니어 프로그램, 대학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많은 초기 경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450명 이상의 직업교육을 시행했다.

Good Point 3 저탄소 일자리 직무 전환 성공

SSE의 내부 조사 결과, 직원들은 저탄소 일자리로의 직무 전환을 원하고 있었고, 이에 직원 1,000명 이상의 재배치에 성공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탄소

직무에서 저탄소 직무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1순위)는 '더 나은 장기 경력 전망'(51%)이었다. 또한 SSE는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대다수 직원들과 정규직 계약을 체결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7%가 현재 직무의 핵심적인 이점으로 '직업 안정성'을 꼽았다. 현재 SSE 직원의 95%가 정규직 계약을 맺고 있으며, 2020/2021년 기준 SSE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0.7년, 자발적 이직률은 3.6%를 기록하고 있다.

SSE 사내 만족도 조사 - 고탄소 직무에서 저탄소 직무로 전환한 이유 중복 응답



Key Takeaways

기업명	SSE(Scottish and Southern Energy)
산업	에너지
설립	1998년
직원 수	1만 754명
매출	86억 파운드(약 14조 원)
웹사이트	https://www.sse.com/
공시 방법	<공정전환 보고서>

공정전환 Key Facts

- ▶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46개 커뮤니티 기금을 조성. 2008년부터 2050년까지 풍력발전소의 수익 분배를 통해 최소 2억 5,000만 파운드(약 4,100억 원)를 지역사회에 지급할 전망
- ▶ 다양한 레벨의 직무 재교육을 통해 직원 약 450여 명 교육 이수
10년간 직원 6,685명 중 1,081명을 고탄소 업종에서 저탄소 업종으로 재배치

공정전환 Key Points

- ▶ 2020년 11월 글로벌 기업 최초로 공정전환 전략 제시(5대 원칙, 20개 세부 원칙)
- ▶ 외부 이해관계자 및 내부 임직원 의견 수렴(영향 평가)을 통해 포용적 직무 전환 수행
- ▶ 공정전환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다수의 단기계약을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

- * 18 Eni - Eni and the people-centred transition (2021).
- 19 Eni - Eni a Gela 2021 Report Locale di Sostenibilità (2021).
- 20 Inclusive Capitalism - Just Transition Framework For Company Action (2023).
- 21 Eni - ENI for 2022 just-transition (2022).
- 22 SEE - Just transition: measuring progress (2023).

2-2. 내부 임직원 직무 전환 및 조직 Restructuring - RWE(Rheinisch-Westfälisches Elektrizitätswerk), 에넬(Enel)

국내의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노동자 54만 명은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다.*21 특히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부문은 이미 사업 축소와 전환 목표가 확정돼 있어, 단기간 내에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2030년까지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서 연간 3,000~4,000명,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연간 5,000명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22

직무 전환을 위한 내부 임직원 교육과 훈련은 공정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게 글로벌 기업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우리 정부 또한 탄소중립 3대 전략 중 하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발표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41개 사업을 통해 총 1조38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2022년 기준, 고용노동부). 울산시, 전주시 등 11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3년 1,450개 목표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과 전직 훈련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아직 국내에서는 뚜렷한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 사례를 보면, 기업이 주도적으로 직무 맞춤형 교육을 개발한 사례가 많다. 해외 선도기업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핵심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 연차, 업무 숙련도, 희망 근무 형태 등을 파악해 맞춤형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고탄소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직의 경우, 일정 기간 고용유지를 보장하는 동시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전환'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방식이 호응을 얻어왔다. 또 이러한 직원을 위한 공정전환 역할을 담당할 핵심 태스크포스를 지정해, 직무 전환과 맞물린 조직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직원들의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전환 이행이 곧 직무 변경이나 조직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Case Study ③

RWE(Rheinisch-Westfälisches Elektrizitätswerk) - 공정전환 이행 전담팀 구성

독일 최대 에너지 기업이자 해상풍력 기업인 RWE는 화석연료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500억 유로(약 70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23

**Good
Point 1**

**인사 부서에 공정전환
이행 전담팀 구성, 계획 이행**

RWE는 HR팀을 중심으로 공정전환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Our Energy has Impact'를 만들었다. 이들은 사업장별로 자체 인사 부서를 두

고 지역별 필요를 고려하여 경력 개발, 채용 등의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갖쳤다.

기업 내부 직원들의 직무 전환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내 네트워크에 일자리 공고 플랫폼을 만들었다. 내부 채용 게시판을 통일하여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온보딩, 오프 보딩 및 직무 변경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어느 사업장에서 일해도 업무 프로세스가 동일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같은 자리에서 다른 국가에 있는 사업장과 일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사무실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와 'HR 탈석탄팀(HR Coal-Phaseout team)'을 조직해, 전사적으로 공정전환을 이행할 수 있는 실무진을 마련했다. 이들은 2022년 에너지 전환을 한 발전소 2개에서 공정전환을 위해서 발전소 운영팀, 노동자위원회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전략을 이행했다. 이를 통해 인력 감축과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100회가 넘는 회의를 한 끝에 노동자위원회의장과 함께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Good Point 2 직원 관여 지표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RWE는 공정전환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직원들이 사내 정책과 문화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자체적인 직원 관여 지표(Engagement Index)를 개발했다. RWE는 이 지표를 통해 직원들의 기업 인사 전략 관여도를 파악, 공정전환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찾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그룹 단위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 동기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관여 지표는 2021년에 비해 3% 증가한 84%를 기록, 원래 목표인 78%를 초과 달성했다.

Key Takeaways	
기업명	RWE
산업	에너지
설립	1898년
직원 수	1만 9,792명
매출	245억 유로(약 14조 원)
웹사이트	https://rwe.com/
공시 방법	<넷제로 보고서>

공정전환 Key Facts

- ▶ 공정전환 내부 직원 관여 지표 84% 달성
- ▶ 에너지 전환 대상 발전소 2개에서 공정전환 TF팀 구성해 인력 감축 등의 미래 계획 노사 합의 완료

공정전환 Key Points

- ▶ HR 탈석탄팀 구성하여 전환 사업장 노동자위원 회와 이해관계자 소통 전담
- ▶ 공정전환 관련한 직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직원 관여 지표'를 만들고 공정전환 성과 모니터링에 활용

에넬(Enel) - 지역 및 임직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훈련 시스템

유럽 최대 규모이자 매출 기준으로 세계 2위 전력회사인 에넬은 신재생에너지 전문 자회사 에넬 그린 파워(Enel Green Power)를 통해 59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24

Good Point 1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고용유지 및 직원 재교육

에넬은 2015년 발전소 해체로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의 공정전환을 위해 '퓨처(Fu-tur-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역 내 40여 개 발전소, 석탄 광산, 석탄 발전설비의 기존 구조와 기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해 지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퓨처 프로젝트는 크게 4가지 실천 영역을 설정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지역 내 경제활동과 고용 촉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전문적 재훈련을 진행하고, 에넬의 새로운 플랜트에 최대한 재고용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성 증진 등이다. 또한 에넬은 개인의 선호도를 존중, ▲화력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직무 전환 ▲자발적 조기퇴직 ▲재생에너지 분야 직무 재훈련 등의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재생에너지 인프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유지와 재교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었다. 기존 화력발전소 직원 우선 채용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기존 화력발전소 노동자 55%가 직무 전환을 통해 재배치됐고, 이들은 1인당 평균 110시간의 재숙련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직무 전환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재취업 지원금 및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이 선호하는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Good Point 2

심층 설문문을 통한 개별 맞춤형 직무 전환 프로그램

에넬은 직원들을 성별, 나이, 직무, 직급의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연 4회 공정전환에 대한 심층 설문을 실시해 ▲공정전환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공정전환 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 ▲공정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식수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에넬은 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직무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행동 계획 및 성과를 추적하며, 직원들이 속한 국가·시설·직무에 따라 결과를 분석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향한다. 2022년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이 공정전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공정한 대우 및 보상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임직원 개개인의 특성 고려로 나타났다.

에넬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미 에듀케이션(ME eDucation)'을 제작해 직원의 선호도에 따른 직무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온라인 자기 학습 프

그럼부터 지역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 교육까지 넓은 범위가 포함된다. 교육은 기초 개념 교육, 기존 업무 역량을 보완하거나 숙련도를 높이는 업스킬링(Upskilling), 완전히 새로운 직무를 배우는 리스킬링(Reskilling)으로 분류된다.

에넬은 직무 전환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노던 오클라호마 대학교(Northern Oklahoma College)의 풍력 테크니션 양성 프로그램 ▲밀라노 보코니 대학교의 중간관리자 지속 가능성 교육 ▲국제 텔레매틱 대학교(UNINETTUNO)의 장년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

Key Takeaways

기업명	Enel
산업	에너지
설립	1962년
직원 수	6만 5,214명
매출	1,410억 유로(2022년)
웹사이트	https://www.enel.com/
공시 방법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공정전환 Key Facts

- ▶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 활용, 고용유지 정책, 맞춤형 교육 통해 화력발전 사업 부문 공정전환율 55% 및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110시간 달성

공정전환 Key Points

- ▶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임직원의 개인적 특성, 지식수준,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직무 전환 프로그램 제공
- ▶ 지역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분야의 직무 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21 대한상공회의소 -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SGI 브리프> 제3호 (2022).
 22 정치경제연구소 - <https://bit.ly/49V1sfd>
 23 RWE - <https://www.rwe.com/-/media/RWE/documents/09-verantwortung-nachhaltigkeit/cr-berichte/sustainability-strategy-report-2022.pdf>
 24 에넬그린파워 - <https://www.enelgreenpower.com/media/press/2023/01/new-records-2022-renewable-capacity>

2-3. 공급망 협력 업체 지원

-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EDF(Électricité de France)

공정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공급망 협력 업체와 그곳의 임직원들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 구조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 기존 부품의 37%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5 공정전환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는 완성차업체 7개사 12만 6,000명, 협력 업체 9,000여 개사 22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조사도 있다.*26 반면 협력 업체 중 미래차 부품 생산 기업은 210여 개사로, 전체의 2.3% 수준이다.

더 나아가 스마트 팩토리 등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자동차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비·판매 종사자(약 28만 명), 주유·금융 종사자(약 26만 명) 등까지 합치면*27, 자동차 한 분야만 해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품 생산 기업의 81.6%는 미래차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향후 전기차 판매 대수는 2030년 글로벌 신차 시장의 최대 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향후 10년 이내 국내 산업계는 격변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다. 내연기관 자동차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고탄소 배출 산업군은, 공정전환에 따라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노동 수요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보면, ▲현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및 개편 컨설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상공회의소) ▲노사 주도 전직 훈련 개발 ▲대·중·소 상생형 공동 훈련 센터 개설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원 방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모기업과 협력 업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실제 공정전환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을 위해 협력 업체와 주요 조선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구조개선을 전혀 실행하지 못했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커뮤니케이션 강화, 현지 기업 참여 장려 등을 통해 공급망 전환에 성과를 내고 있다.

Case Study ⑤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 현지 기업 참여를 통한 공정전환 체계 공동 구축

앵글로 아메리칸은 백금, 금, 다이아몬드, 석탄, 구리, 철광석, 니켈, 석탄 등
공업용 광물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세계적인 광산 기업이다.

최근에는 '광업의 재구성(Re-Imagining Mining)'이라는 슬로건 아래
광산 공급망 탈탄소화 및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ood Point 1

남아프리카 지역 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로 에너지 공급망 공정전환 노력

영글로 아메리칸의 주요 광산 및 협력 업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위치한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의 경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및 재원 부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영글로 아메리칸은 프랑스 에너지 기업 EDF와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합작법인 엔부사 에너지(Envusa Energy)를 설립해 지역 재생에너지 생태계(Regional Renewable Energy Ecosystem)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10년 안에 해당 지역에 3~5GW 규모의 태양 및 풍력에너지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글로 아메리칸은 이 사업에서 공정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엔부사 에너지의 지배구조에 현지 지분 파트너를 포함 ▲물품 구매, 현장 건설 등의 활동에서 현지 협력 업체 적극 활용 및 동반 성장 도모 ▲풍력 터빈 및 태양광발전소 건설 확보 후, 지역 주민 혜택 및 현지 기업들과의 동반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역사적으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은 흑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흑인 경제 육성(BEE, Black Economic Empowerment) 정책을 시행해 흑인 소유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영글로 아메리칸은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경제적 참여를 독려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현지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전환 및 경제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또한, 영글로 아메리칸은 자사의 수소 기반 광물 채굴 차량*28 운용을 위해 현지에 수소*29 공급망을 구축하는 누겐(NuGen)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학혁신부,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반의 에너지 회사 밤빌리 에너지(Bambili Energy) 등과 함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운송, 산업 및 건설 부문에서 9가지 혁신 기회를 발견했다. 또한 누겐 프로그램을 통해 2050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GDP에 40억~90억 달러(약 5조~11조8,000억 원)를 직간접적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또한 연간 1만 4,000~3만 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Good Point 2

공정전환을 고려한 탄광 폐쇄 전략 수립

영글로 아메리칸은 2007년부터 <탄광 폐쇄 툴박스 (Toolbox)*30를 발간해 노후화된 탄광 폐쇄 전략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007년, 2013년, 그리고

2019년 총 3회에 걸쳐 <탄광 폐쇄 툴박스>를 발간했는데, 2019년에 발간한 Version 3에서는 공정전환 요소를 다루었다.

또한 영글로 아메리칸은 탄광 폐쇄로 인한 공정전환의 단계별 행동 계획을 6가지 제시했다. 이는 ▲탄광 폐쇄 결정 이전 단계에서 사회적 영향 평가 수행 ▲내부 임직원 및 협력 업체의 공정전환 니즈 파악 ▲공급망 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수립 ▲공급망 내 노동자들의 직무 역량 파악 및 직무 전환 계획 수립 ▲직무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등의 필요 리소스 및 잠재적 대상 인원 파악 ▲직무 전환 프로그램 운영 및 노동자 피드백 수렴으로 구성되었다.

Key Takeaways

기업명	Anglo American plc
산업	채굴 및 광산업
설립	1917년
직원 수	2023년 기준 9만 5,000명
매출	2022년 기준 351억 달러(46.7조 원)
웹사이트	https://www.angloamerican.com/
공시 방법	<지속 가능성 보고서>

공정전환 Key Facts

- ▶ 공정전환 사업을 통해 40억~90억 달러의 GDP 증가 및 1만 4,000~3만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 전망
- ▶ 지역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사업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3~5GW 규모의 태양 및 풍력에너지 발전 단지 건설 예정

공정전환 Key Points

- ▶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역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및 수소 공급망 구축 사업 과정에서 현지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포용적인 생태계 구축
- ▶ 탄광 폐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공급망 내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니즈를 파악하여 공정전환 수행

Case Study ⑥

EDF(Électricité de France) - 지역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춘 공정전환

EDF는 프랑스 정부가 지분 84%를 소유한 전력 기업으로, 매출 기준으로 중국 국가전망공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전력 공급 기업이다. 약 117.6GW의 발전설비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재생에너지는 약 15.6GW를 차지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50GW로 늘리고, 탄소 배출 8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Good
Point 1

중소기업 공정전환
집중 지원 프로그램

EDF는 공정전환 수행 시 핵심 이해관계자로 지역 중소기업을 꼽았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매 비중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31

실제 EDF는 중소기업 구매 비율을 지속 가능성 전략의 핵심 성과 지표로 꼽고 있으며, 2022년에는 23%의 중소기업 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EDF의 구매 부서는 중소기업(SME)*32과의 비즈니스 관계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지원 방안을 실행 중이다. 여기에는 ▲미래 사업에 대한 계획 및 필요 사항 공유(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한 기술과 인증을 위한 조치, 시장구조 및 고객에 대한 정보 등) ▲중소기업 해상풍력 기술 역량 개발 지원 ▲사업 입찰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 지원(네트워킹 기회 마련, 프로젝트의 선제적 공개, 다른 기업 및 그룹과의 파트너십 기회 증가)이 있다.

2021년 5월, EDF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억 5,000유로(약 1조 7,850억 원) 규모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다. 이 채권의 지원 분야는 에너지 발전 및 전력 송전 분야였다. 지원 대상은 EDF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협력 업체들이었다. 특히 실업률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EDF의 전력 송배전 전문 자회사 에네디스(Enedis)는 지역 중소기업 물품·서비스 구매 비율 54%를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약 5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EDF는 중소기업들을 자사의 재생에너지·전력 송배전 분야 협력 업체로 육성하기 위한 교

Key Takeaways

기업명	EDF
산업	에너지
설립	1946년
직원 수	2021년 기준 16만 5,000명
매출	2021년 기준 845억 유로
웹사이트	https://www.edf.com/
공시 방법	<지속 가능성 보고서>

공정전환 Key Facts

- ▶ 중소기업 구매 비율을 지속 가능성 전략의 핵심 성과 지표로 삼았으며, 2022년 구매 비율 23% 달성
- ▶ 중소기업을 직접 육성해 자사와 협력관계 체결(중소기업 약 250여 개 발굴)
- ▶ 실업률 높은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 12억 5,000유로(약 1조 7,850억 원) 규모 사회적 채권 발행
- ▶ EDF의 전력 송배전 전문 자회사 에네디스, 지역 중소기업 물품·서비스 구매 비율 54% 달성해 5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

공정전환 Key Points

- ▶ 지역 내 중소기업을 공정전환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꼽고 재정 지원, 역량 개발 같은 집중 지원 프로그램 수행
- ▶ 자사 직원, 대학, 기술 전문가 등을 섭외한 후, 이들을 중소기업 구성원들과 매치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 교육

육 및 역량 개발 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EDF는 중소기업들을 초청해 ▲자사의 주요 사업 및 입찰 과정 소개 ▲대면 미팅 및 기업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잠재적 협력 업체 파악 ▲워크숍, 훈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중소기업 교육 ▲기업 현장 감사 및 컨설팅 등의 과정을 수행한다. 특히 핵심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EDF는 자사 직원, 대학, 기술 전문가 등을 섭외한 후, 이들을 중소기업 구성원들과 매치해 EDF 에너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교육한다. EDF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700여 개의 잠재적 협력 업체를 파악했으며, 이 중 250개사와 실제 파트너십을 맺어 계약을 체결했다.

- * 25 IBK경제연구소 - <http://research.ibk.co.kr/research/board/economy/details/251182?url=L2JvYXJkL2Vjb25vbXkvbGlzdA==>
- 26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511
- 27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자동차산업 직간접 고용현황 분석> (2020)
- 28 글로벌 마이닝 리뷰 - <https://www.globalminingreview.com/environment-sustainability/18052023/worlds-largest-fuel-cell-electric-vehicle-completes-successful-year-of-trials/>
- 29 에너지 캐피탈 앤 파워 - <https://energycapitalpower.com/africa-sustainability-in-mining/>
- 30 앵글로 아메리칸 - <https://www.angloamerican.com/~//media/Files/A/Anglo-American-Group/PLC/sustainability/mine-closure-toolbox-version-3-2019.pdf>
- 31 EDF - https://news.industrial-europe.eu/documents/upload/2023/4/638168981121981291_edfgroup_rse_transition-juste-et-inclusive_principes_va.pdf
- 32 세계 지속 가능 발전 기업위원회 - <https://www.wbcso.org/content/wbcso/download/16154/231763/1>, 18~19p.

2-4.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New Model 제시 - 에퀴노르(Equinor), 이베르드롤라(Iberdrola), 마라톤 퍼트roleum(Marathon Petroleum), 오리진 에너지(Origin Energy), 서던 컴퍼니(Southern Company))

탄소중립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특히 국가별로 산업구조와 기후변화 대응 수준 등에 따라 성장 효과의 편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33

이러한 격차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특히 화학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고배출 업종을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삼는 지역사회의 경우 탄소중립으로 인한 타격을 피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국내 석탄 발전은 전체 발전 비중의 40% 가까이 차지하며,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 59개는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강원도, 인천시 5개 지역에 집중돼 있다.*34 2050 탄소중립 정책 및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 발전은 2030년 19.7%로 비중을 낮추고, 2050년에 모두 퇴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발전회사, 협력 업체, 지역의 산업 종사자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고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뿐 아니라,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해 있는 울산시와 여수시 등 지역 산업단지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공정전환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주체 또한 지방자치단체다. 산업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이행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다. 즉, 폐업과 일자리 감소 등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혁신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공정전환의 핵심 의제가 된 것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의 공정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보고서(2022)에서 공정전환을 위해서는 ▲민간의 주도적 역할 ▲정부 역할 재정립 ▲맞춤형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이 함께 모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공정전환을 이행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자금 조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력 재교육 등 기획 단계부터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사결정을 추진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Study ⑦

에퀴노르(Equinor)

- 재생에너지 대외협력팀&지역사회 참여형 풍력 단지 건설

에퀴노르는 1972년 노르웨이 최대 국영 정유사로 시작해 현재는 재생에너지에 중점*35을 둔 종합 에너지 회사로 발전한 기업이다.

에퀴노르는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5년 기준 배출량의 9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총자본 지출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어날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퀴노르는 에너지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3그룹(직원, 협력 업체와 협력 업체 직원들,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36을 식별했다.

이들을 위해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측정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2022년 에너지 전환 보고서에 명시했다. 에퀴노르는 ▲인권 증진 노력 ▲반부패 ▲수익 투명성 및 책임 과세 원칙 ▲인력개발과 재교육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등을 담아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공정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Good Point 1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가들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대외협력팀**

에퀴노르는 2022년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지역 구성원 참여 촉진을 위해 15 명의 재생에너지 대외협력팀을 구성했

다. 대외협력팀은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해상풍력 단지 중 하나인 ‘엠파이어윈드(Empire wind project)’ 등을 비롯,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 시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외협력팀 활동가들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해 실제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거나, 오랜 기간 지역 정치를 해온 경력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했다. 활동가들의 구체적인 경력과 전문 분야는 프로젝트 사이트에 공시돼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Good Point 2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풍력발전 사업 ‘엠파이어윈드’**

미국 최초로 개발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중 하나인 엠파이어윈드는 뉴욕의 100만 가구 이상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

트다. 이를 위해 에퀴노르와 BP는 물론 뉴욕주 정부, 시민사회, 대학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현지 경험과 역량 구축을 위해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와 뉴욕주 에너지 연구 및 개발청(NYSERDA)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지역 단위의 단체로는 브루클린의 ‘커뮤니티 보드 7(Community Board 7)’과 ‘선셋 파크 TF(Sunset Park TF)’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특히 선셋 파크 TF는 환경정의와 인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색인종 여성들이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전환 단체 업로즈(UPROSE)도 포함돼 있다.

Good Point 3 **젠넥스트(GENext) 이니셔티브, 지역 구성원들에 해상풍력 교육 및 인력개발**

2023년 엠파이어윈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롱아일랜드 및 뉴욕 시 노동자들을 위한 인력 육성 기

회 구축 프로그램인 ‘젠넥스트(GENext)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실질적인 엠파이어윈드 건설 전에 시작할 예정인데, 지역 교육구, 대학 및 노동조합과 함께 재생에너지 산업, 특히 해상풍력에 대

한 교육과 인식 개선, 접근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Key Takeaways

기업명	Equinor
산업	에너지
설립	1972년
직원 수	2022년 기준 2만 2,000명
매출	2022년 기준 1,500억 달러(약 202조 원)
웹사이트	https://www.equinor.com
공시 방법	<지속 가능성 보고서>

공정전환 Key Facts

- ▶ **엠펙아이윈드 프로젝트:** 에퀴노르와 BP가 공동 진행하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로 뉴욕 해안에 2.1GW 용량의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를 통해 100만 가구 이상의 뉴욕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
- ▶ **뉴욕주의 재생에너지 및 기후 목표를 지원하며,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2028년까지 1,000개의 단기 일자리, 200개의 장기 일자리 창출**

공정전환 Key Points

- ▶ **시민사회, 주정부, 대학, 지역 내 전문가 집단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참여형 해상풍력 사업 수행**
- ▶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지역사회 활동가 15명으로 재생에너지 대외협력팀 구성**
- ▶ **소외된 지역사회의 주민들(여성 소유 기업, 소수자, 지역 소상공인)에게 해당 프로젝트의 인력개발 및 교육 등의 기회 우선 제공**

- * **33** 한국은행 -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28/view.do?nttlId=10064225&menuNo=200434>, 12~14p.
- 34** 에너지신문 -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564>
- 35** 세계 지속 가능 발전 기업위원회 - <https://www.wbcsd.org/contentwbc/download/16154/231763/1>, 22~23p.
- 36** 에퀴노르 - <https://www.empirewind.com/2022/08/25/equinor-announces-public-affairs-team-for-us-offshore-wind-projects/>

이베르드롤라(Iberdrola)

- 석탄화력발전소 직원 재교육 및 지역사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전환

스페인인 2018년 전 국가적으로 공정전환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7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석탄 생산의 대명사이던 스페인에서 석탄 공장 폐쇄가 이어지자 석탄 공장 노동자 수백 명은 실업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베르드롤라는 이러한 산업전환 과정의 선두에 있는 글로벌 에너지 회사로서, 1,500억 유로(약 214조 원) 규모의 자산을 통해 1억 명 이상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전 세계의 석탄화력발전소 17개를 폐쇄했으며, 최근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2개의 문을 닫았다.

지난 20여 년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력해왔고,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6만MW(메가와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Good Point 1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시민 플랫폼 구축

2020년 9월 이베르드롤라는 스페인 아스투리아스(Asturias) 지역에 '시민 혁신 플랫폼(Citizen's Innovation Platform)'을 구축했다. 아스투리아스 지역

의 에너지 전환 관련 이니셔티브를 지원,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플랫폼을 통해 시민, 공공기관, 기업이 참여해 함께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해 논의한다.

시민 혁신 플랫폼 프로젝트는 지역 내 주요 과제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이후 이니셔티브를 발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플랫폼은 라다(Lada) 공장 직원 약 10명에 대한 교육 지원을 시작으로 지역 내 기업가 및 협력 업체에 최고의 연구 혁신(R&D&I) 이니셔티브를 연결하고자 했다. 더불어 시민 혁신 플랫폼은 날론(Nalón) 지역의 스타트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지 협력 업체에 대한 펀딩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37

Good Point 2

화력발전소 지역사회를 재생에너지 허브로 전환

이베르드롤라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의 화력발전소 17개를 폐쇄했으며, 최근에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아스투리아스 및 팔렌시아 지역의 석탄

발전소를 폐쇄했다. 발전소 해체는 4년 반 이상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기에, 두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여러 활동이 전개됐다. 해당 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투자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이베르드롤라는 아스투리아스 지역에 풍력발전기 4개를 설치하고, 팔렌시아 지역에 400M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베르드롤라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투자 규모가 1억 유로(약 1,400억 원)를 상회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전체 프로젝트 기준 약 2,000명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베르드롤라는 아스투리아스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추가 투자 ▲지역 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핵심 기술에 대한 청소년 교육 ▲미래 고용 분야와 시민 혁신 플랫폼 구축의 4가지 행동 영역을 정의했다.

아스투리아스 석탄발전소가 폐쇄된 대신 풍력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산업 활동 및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장 및 토목공사는 대부분 현지 기업들이 시행한다. 이 풍력발전소는 10만 가구 이상에 청정한 전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매년 6만 5,5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Key Takeaways

기업명	Iberdrola
산업	에너지
설립	1992년
직원 수	4만 90명
매출	539억 유로(약 77조 원)
웹사이트	https://www.iberdrola.com/home
공시 방법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웹으로 공시

공정전환 Key Facts

-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의 화력발전소 17개 폐쇄,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2곳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착수
- ▶ 아스투리아스 지역에는 풍력발전기 4개를 설치하고, 팔렌시아 지역에는 400M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예정

공정전환 Key Points

-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혁신 플랫폼' 구축
- ▶ 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스타트업 육성, 직원 재교육, R&D 사업 인력 매칭 등의 사업 수행
- ▶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 1억 유로 투자해 해당 부지에 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총 2,000여 개 일자리 창출 효과

마라톤 퍼트롤리엄(Marathon Petroleum) - 지역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 통한 공정전환 지원

마라톤 퍼트롤리엄은 미국 최대 정유업체로, 정유·운송·재생 가능 연료·산업용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30년까지 Scope 1, 2 배출량은 2014년도 대비 30% 감축, Scope 3 배출량은 15% 감축 등 탄소발자국과 생물다양성, 안전, 형평성 및 포용성 등 다양한 지속 가능성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 마라톤 퍼트롤리엄은 2020년 3월, 미국 정유업체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의 지속 가능성 지표를 임원 및 직원 보상 체계와 연계*38하기도 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의지가 엿보이는 지점이다.

Good Point 1 웹사이트를 통한 전환 성과 공유 및 이직 지원

마라톤 퍼트롤리엄의 공정전환 전략 중 하나는 정보 공개를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다. 2022년 마라톤 퍼트롤리엄은 주정부와 협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마르티네스 정유공장을 재생연료 제조 및 운송을 위한 터미널 시설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웹사이트*39를 구축, 재생연료로의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증대, 수자원 사용 감소 등 환경 및 경제적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실시, 마라톤 퍼트롤리엄의 직원들이 지역 일자리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경력 전환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Good Point 2 민간 파트너들과 함께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및 인재 양성 지원

마라톤 퍼트롤리엄은 마르티네스 정유공장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지역 대학인 디아블로 밸리 대학(Diablo Valley College)*40 기술 관련 학과에 10만 달러(약 1억 3,426만 원)를 출연하여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FastTRAX Engineering Technology Career Academy)을 마련했다.

노스다코타(North Dakota) 디젤 공장의 재생 디젤 공장 전환*41 과정에서는 맥킨지 카운티 공립 교육 지구와 협력해 지역 기술 센터를 신축하기도 했다. 기술 센터에서는 지역 일자리개발청 등 정부 기관과 함께 성인 대상 교육과정 개편, 학생 교육 기회 확대 등 교육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공립기술대학인 유인타 베이스 테크니컬 대학(Uintah Basin Technical College)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용접, 전기, 건설기술 등 40개 이상의 자격증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Good Point 3 비영리단체 후원을 통한 지역 주민 일자리 기회 제공

마라톤 퍼트롤리엄은 푸드뱅크, 법률 단체, 청소년단체, 환경단체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비영리 단체에도 지원금을 지급, 전환을 위한 주요 협력

사로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미국 군인들의 사회 진출 지원 사업이다. USO 전환 프로그램(Pathfinder Transition Program)^{*42}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와 협력, 군 관계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적절한 직업과 경력을 갖출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ey Takeaways

기업명	Marathon Petroleum
산업	석유화학
설립	2009년
직원 수	1만 7,800명
매출	1,774억 달러
웹사이트	https://www.marathonpetroleum.com/
공시 방법	<공정전환 보고서>

공정전환 Key Facts

- ▶ 캘리포니아 마르티네스 정유공장을 재생연료 공장으로 전환
- ▶ 노스다코다 디젤 공장을 재생 디젤 공장으로 전환

공정전환 Key Points

- ▶ 사업장 공정전환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히 공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 지역 교육기관과 협업, 인재 양성 및 고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 ▶ 비영리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 일자리 제공

- * 37 이베르드롤라 - <https://www.iberdrola.com/press-room/news/detail/iberdrola-launches-citizen-innovation-platform-encourage-entrepreneurship-asturias>
- 38 마라톤 퍼트리올리엄 - https://www.marathonpetroleum.com/content/documents/Investors/2023_MPCProxyStatement.pdf, 35p.
- 39 마라톤 퍼트리올리엄 - <https://www.marathonmartinezrenewables.com/>
- 40 마라톤 퍼트리올리엄 - <https://www.marathonpetroleum.com/content/documents/Responsibility/JustTransitionReport.pdf>, 11p.
- 41 마라톤 퍼트리올리엄 - <https://www.marathonpetroleum.com/content/documents/Responsibility/JustTransitionReport.pdf>, 8p.
- 42 마라톤 퍼트리올리엄 - <https://www.marathonpetroleum.com/content/documents/Responsibility/JustTransitionReport.pdf>, 11p.

오리진 에너지(Origin Energy)

- 이해관계자 책임 원칙에 따른 지역사회 관여 체계 수립

오리진 에너지*43는 호주의 가장 큰 에너지 기업 중 하나로, 전기·천연가스·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오리진 에너지는 2050년까지 순제로 달성 목표를 수립했다. 오리진 에너지의 전환 사례는 호주 에라링(Eraring)에 위치한 에라링 화력발전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라링 화력발전소는 35년 이상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전력 수요의 25%를 공급해온 곳으로, 720MW의 석탄 화력 발전기 4개와 42MW의 디젤발전기 1를 갖추었다. 전체 발전용량 기준으로 보면 호주 최대 규모다. 2022년 오리진 에너지는 자체적인 탈탄소화 전략에 따라, 2025년 8월 에라링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계획*44이다. 발전소의 본래 수명은 2032년까지이나 예정보다 7년 앞당기는 것이다. 발전소 부지에는 460MW 규모의 배터리 설비가 들어선다. 이는 오리진 에너지의 첫 번째 대규모 배터리 프로젝트다. 2023년 4월, 배터리 프로젝트를 위한 1단계 투자가 승인됐으며, 향후 2년간 약 6억 달러(약 8,114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오리진 에너지의 에라링 배터리 프로젝트*45는 지역 경제의 대전환 외에도 호주의 도매전력시장(NEM, National Electricity Market) 중 재생에너지 부문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Good Point 1

핵심 이해관계자 식별 및 전략 수립

오리진 에너지는 각 이해관계자별로 개별적인 전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전환을 위한 핵심 이해관계자를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 지구 등 4그룹으로 분류했다. 에라링 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을 보면, 오리진 에너지가 각 이해관계자의 특성별로 전환을 추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ood Point 2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펀드 조성

오리진 에너지는 2022년 500만 달러(약 67억 원) 규모의 커뮤니티 펀드를 조성, 에라링 지역 공동체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펀드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후원, 보조금, 파트너십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사업은 4가지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되는데, 공동체 웰빙·공동체 회복력·경제적 전환 및 다양화·환경보호 등이 중요 기준이다.

2023년에는 커뮤니티 투자 기금 자문위원회(커뮤니티 포럼의 하위 조직) 감독 아래 펀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투자 전략(Community Investment Strategy)이 수립됐다. 자문위원회는 매년 2개의 투자 라운드를 통해 투자처를 심사 및 평가하고, 연평균 50만 달러(약 6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펀드는 2023년 5월 첫 투자 심사를 진행했으며, 총 8개 프로젝트가 선정돼 2023년 하반기 첫 투자금을 지급했다.

오리진 에너지가 분류한 이해관계자 4그룹

임직원 임직원 전환 계획이 투명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한편, 임직원의 경력과 관련된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임직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직원 교육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경력 전환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등을 실시했다. 특히 직원들의 경력 개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개별 지원 계획(ISPs, Individual Support Plans)은 전체 직원 중 93%가 수료하기도 했다.

지역사회 오리진 에너지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2023년 경영 원칙과 사회적 리스크 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참여 전략(Community Engagement Strategy)을 수립했다. 이 전략을 바탕으로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단체, 지역주민부지위원회, 기업, 교육,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포럼이 구성됐으며,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화력발전소 폐쇄로 영향을 받는 지역 영세 업체들에 새로운 배터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시행할 수 있었다.

고객 오리진 에너지는 화력발전소 폐쇄 이후에도 전력 공급 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장 4개의 폐쇄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성, 안전성 등에 대한 시장 평가 또한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구 오리진 에너지는 마지막 이해관계자인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기존 발전소 잔여 자재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 부지의 재개발 기회 탐색 등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부지의 복구 혹은 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에라링 배터리 프로젝트 또한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했으며, 배터리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

Key Takeaways

기업명	Origin Energy
산업	에너지
설립	2000년
직원 수	약 5,000명
매출	10억 5천만 달러(약 1조4천억 원)
웹사이트	https://www.originenergy.com.au/
공시 방법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웹으로 공시

공정전환 Key Facts

-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해당 부지는 배터리 발전시설로 활용
- ▶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500만 달러(약 67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

공정전환 Key Points

- ▶ 500만 달러 규모의 지역 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형 공정전환 추진
- ▶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을 도출하고 각 그룹마다 별도의 책임 원칙 수립
- ▶ 지역사회 책임 원칙에 따라 주정부, 지역 기업,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포럼 구성

서던 컴퍼니(Southern Company) - 발전소 부지의 용도 변경 및 다변화

서던 컴퍼니**46는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로 전기,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 원자력, 배터리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전개하고 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라는 목표 아래 2007년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69%를 차지하던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를 2022년 20%까지 낮추는 등 에너지 전환에 힘쓰고 있다.

서던 컴퍼니는 공적전환을 위해 ▲강력한 거버넌스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명한 소통 ▲임직원 지원 및 노조와 협조 ▲지역사회 및 환경과의 약속 ▲지속적인 안전성, 신뢰성, 회복력, 경제성 확보 등 5가지 원칙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2022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특히 임직원 및 노조와의 협조 원칙에 따라 2007년 전환 시작 이래 그 어떤 비자발적 퇴직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임직원의 3분의 1은 국제 전기 노동자 형제단(IBEW,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의 조합원이며, 경영진은 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 회사의 규제, 화력발전소 폐쇄 시점, 향후 협력 계획 등 전체 전환 과정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명확히 전달받을 수 있다.

한편 서던 컴퍼니는 전환 과정에서 폐쇄된 화력발전소 중 상당수를 재생에너지나 바이오연료 생산 등으로 전환, 발전시설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발전소 부지에는 정부 기관이나 민간 파트너와 협력해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기도 한다.

대표 사례로는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Chatham County, Georgia)에 위치한 크라프트 발전소(Plant Kraft)**47가 있다. 크라프트 발전소는 2015년 폐쇄 이후 부지 일부를 조지아 항만청에 기부했다. 조지아 항만청은 이 부지를 저장 및 공급망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 중이다.

**Good
Point 1**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서버너 발전소 부지**

발전소 부지의 활용도는 다양하다. 서던 컴퍼니는 1912년 이후 100년 가까이 운영한 서버너(Savannah) 화력발전소 부지를 메리어트 호텔 계열 리조트 업체인 케슬러 컬렉션(Kessler Collection)에 매각했다. 케슬러 컬렉션은 발전소 부지를 중심으로 호텔, 레스토랑 등을 건설해 강변 발전소에 복합 문화공간 지구를 조성했는데, 175피트(약 53미터) 높이의 발전소 굴뚝, 벽돌 외관 등은 남겨두는 등 역사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관광객 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Good
Point 2**

**파월 증기발전소, 관광지이자
상업 시설로 탈바꿈**

버밍엄 지역의 파월 증기발전소(Powell Avenue Steam Plant)도 역사적인 명소가 된 사례다. 파월 증기발전소는 1895년부터 100년 이상 지역



강변 발전소 문화공간

이미지 출처 <https://www.plantriverside.com/>



파월 증기발전소 문화공간 조성

이미지 출처 <https://www.powellsteamplant.com/>

사회에 증기와 전기를 공급해온 발전시설로, 지난 2013년 운영이 종료됐다.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2014년 미국 국립유적지(NRHP,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지정되기도 했다.

2022년 서던 컴퍼니는 부동산 재개발 업체 오케스트라 파트너스(Orchestra Partners)^{*48}를 통한 파월 증기발전소 부지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8만 5,000평방피트(약 8,000제곱미터, 약 2,300평) 규모의 부지 일대를 레스토랑, 영화관, 카페 등이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의 총투자 규모는 약 6,800만 달러(약 916억 원)이며, 2023년 하반기 첫 번째 상업 시설이 개장, 지역 관광객을 유치한다.

Good
Point 3

발전소 부지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확보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 위치한 서던 컴퍼니 매킨토시 발전소(Plant McIntosh's coal unit)의 천연가스 복합 화력발전소는 석탄 화력 발전기를 폐쇄한 이후에도 여

전히 운영 중이다. 이 발전소가 위치한 서베너강은 서베너 항구를 오가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의 대표적인 수로다.

2022년 미국 육군 공병단과 조지아주 교통국 및 항만청은 항구와 수로를 더 깊이 파서 더 큰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들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베너 항구 항만 확장 프로젝트'^{*47}에 착수했다.

문제는 생물다양성이다. 수로의 깊이가 달라지면 물속 산소량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강물 속 생물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은 매킨토시 발전소의 일부 부지를 확보, 서베너강 상류에 산소 주입 시설을 설치했다. 이 시설을 통해 산소를 주입하면 항구가 있는 하류로 흘러, 강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Key Takeaways

기업명	Southern Company
산업	에너지
설립	1945년
직원 수	약 2만 7,000명
매출	292억 달러(약 39조 원)
웹사이트	https://www.southerncompany.com/
공시 방법	<공정전환 보고서 >

공정전환 Key Facts

- ▶ 8만 5,000평방피트(약 8,000제곱미터, 약 2,300평) 규모의 파월 증기발전소 부지에 6,800만 달러(약 916억 원)를 투자해 복합 문화공간 조성
- ▶ 매킨토시 발전소 부지 내 서베너강 상류에 산소 주입 시설을 설치해 민물 어류 서식 환경 개선

공정전환 Key Points

- ▶ 임직원 및 노조와 협조 원칙 수립해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수행. 비자발적 퇴직 0건
- ▶ 미국 항만청, 부동산 재개발 업체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소 부지 탈바꿈
- ▶ 기존 부지에 항만 확장 및 산소 주입 시설 설치를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복합 문화공간 조성

- * 43 오리진 에너지, <지속 가능 보고서>, (2023), p.29-31, https://www.originenergy.com.au/wp-content/uploads/80/Origin_2023_Sustainability_Report.pdf
- 44 파워 테크놀로지, '오리진 에너지, 2025년까지 2.8GW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 (2022.2.17), <https://www.power-technology.com/news/origin-energy-coal-plant/?cf-view>
- 45 오리진 에너지, <지속 가능 보고서>, (2023), p.24, https://www.originenergy.com.au/wp-content/uploads/80/Origin_2023_Sustainability_Report.pdf
- 46 서던 컴퍼니, <공정전환 보고서>, (2022), p.12-14, <https://www.southerncompany.com/content/dam/southerncompany/sustainability/pdfs/Just-Transition-Report.pdf>
- 47 서던 컴퍼니, <공정전환 보고서>, (2022), p.16, <https://www.southerncompany.com/content/dam/southerncompany/sustainability/pdfs/Just-Transition-Report.pdf>
- 48 오케스트라 파트너스, '파월 증기발전소', <https://www.orchestra-partners.com/powell-steam-plant>
- 49 조지아주 교통국 및 항만청, '사바나 항구 항만 확장 프로젝트', (2022.3.25), <https://gaports.com/press-releases/port-of-savannah-marks-milestone-harbor-deepening-complete/>

P A R T 3

공정전환, 기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

1

Background: 한국의 공정전환 현황

2

공정전환 이해관계자별 체크리스트

3

공정전환 직무별 To Do List

공정전환, 기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

1

Background: 한국의 공정전환 현황

78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및 공급망 지도>^{*50}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11개 주요 제조업은 전국에 분포돼 있다.

수도권에는 경기도에 삼성전자(화성·평택·기흥)와 SK하이닉스(이천)의 주력 생산 공장이 있다 보니 반도체업종이 80%가량 몰려 있다. 충청권에는 디스플레이(43.2%,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등)와 자동차 부품(현대트랜시스·현대모비스), 정유(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 석탄화력발전(51.6%, 당진·태안·신보령·보령·신서천 화력발전소), 시멘트(38.8%, 한일 단양 공장·아세아 제천 공장·성신 단양 공장) 등이 있다.

호남권에는 석유화학(38.9%,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 정유(25.7%, GS칼텍스 여수 공장), 철강(포스코·현대제철·세아베스틸) 등이 분포한다. 강원권에는 시멘트(58.5%, 삼표·쌍용·한일·한라)가 다수를 차지하고, 대구경북권은 철강(24.6%, 포스코·LS전선·현대제철·동국제강), 디스플레이(20.5%, LG디스플레이·LG전자·삼성SDI) 등이 몰려 있다. 동남권은 정유(47.5%, SK에너지·S-Oil·SK엔무브·이수화학), 자동차(40.8%, 현대자동차·르노코리아·한국지엠), 석유화학(33.6%, SK지오센트릭·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SK케미칼), 자동차 부품(27.7%, 현대모비스·현대위아·하온시스템 등) 등이 위치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기준에 따르면, 공정전환 발생 예상 산업은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다.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는 전국이 탄소 고배출 산업으로 대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측면까지 확대해보면, 해당 공장 및 발전소 시설에 영향을 받는 협력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공정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권역은 전국권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공정전환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우선,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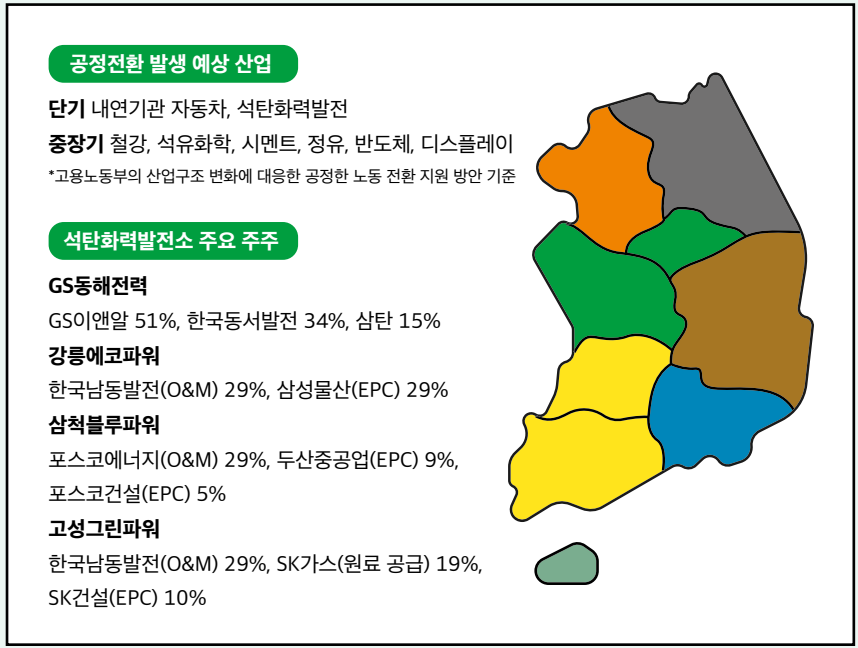
입장과 협력 업체 및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대기업 입장에서 2차전지, 수소 등 신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에 따라, 사업적 효율성을 고려해 인프라를 건설하고 내부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협력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산업전환으로 인해 대기업의 인프라가 없어지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때문에, 이들은 기존 탄소 고배출 산업 밀집 구역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 주도의 공정전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의 '노동 전환 지원 방안'은 핵심 이해관계자로 기업, 노동자, 지역을 꼽고 있는데, 여기서 기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3년 7월 발표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 또한 지역사회의 니즈를 전폭적으로 반영해 전국 각지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및 지역사회 주도의 공정전환 정책이나 사업은 대기업의 니즈와 어긋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정한 2차전지 산업단지는 전라북도 새만금, 울산시, 청주시, 포시 총 4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 때문에 사업적인 시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구역 내의 민원만 처리하기 때문에 4곳의 협업 구도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런 이유로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 614조 원 중 90%인 562조 원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과 지역사회, 정부가 제각각 추진하는 공정전환이 아니라, 기업별 니즈에 맞춰 정부와 지역사회가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 50 한국은행,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 (2023),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125/view.do?nttId=10079007&menuNo=200774&pageIndex=1>



	산업	전국 생산 비중	주요 시설
수도권	자동차	35.5%	기아 화성·광명 공장, 한국 지엠 인천 공장
	자동차 부품	20.5%	현대모비스 화성·평택 공장, HL만도 평택 공장, 현대케피코 군포 공장
	반도체	80.7%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 공장,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엠코테크놀로지 송도 공장
	디스플레이	35.4%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동우화인켐 평택 공장, 한국니트옵티칼 평택 공장
	철강	15.2%	현대제철 인천 공장, 동국제강 인천 공장, KG스틸 인천 공장
	정유	6.1%	SK인천석유화학 인천 공장
	석탄화력발전	10.0%	영흥화력발전소
강원권	자동차 부품	1.2%	HL만도 원주 공장
	석탄화력발전	10.9%	강릉 안인·동해·북평·삼척그린파워·삼척 화력발전소
	시멘트	58.5%	삼표 삼척 공장, 쌍용 영월 공장, 한일 영월 공장, 한라 옥계 공장
충청권	자동차	8.8%	현대차 아산 공장
	자동차 부품	25.5%	현대트랜시스 서산 공장, 현대모비스 진천 공장
	반도체	15.8%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삼성전자 온양 공장, LX세미콘 대전사업장
	디스플레이	43.2%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아산 공장, 삼성SDI 청주 공장, 한솔테크닉스 진천 공장
	철강	16.9%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KG스틸 당진 공장, 동국제강 당진 공장, 대한전선 당진 공장
	정유	20.6%	HD현대오일뱅크 서산 공장, HD현대케미칼 서산 공장
	석유화학	22.2%	한화토탈에너지스 서산 공장, LG화학 서산 공장, 롯데케미칼 서산 공장

	산업	전국 생산 비중	주요 시설
	석탄화력발전	51.6%	당진·태안·신보령·보령·신서천 화력발전소
	시멘트	38.8%	한일 단양 공장, 아세아 제천 공장, 성신 단양 공장
대경권	자동차 부품	19.0%	평화 발레오 대구·경주 공장, 경신 경주 공장, 화신 경주 공장, 다스 경주 공장
	디스플레이	20.5%	LG디스플레이 구미 공장, LG전자 구미 공장, 삼성SDI 구미 공장
	철강	24.6%	포스코 포항제철소, LS전선 구미 공장, 현대제철 포항 공장, 동국제강 포항 공장
호남권	자동차	14.1%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기아 광주 공장, 타타대우쌍용차 군산 공장
	자동차 부품	6.1%	현대위아 광주 공장
	철강	19.1%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순천 공장,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정유	25.7%	GS칼텍스 여수 공장
	석유화학	38.9%	LG화학 여수·나주·익산 공장,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 공장, 한화솔루션 여수 공장
	석탄화력발전	2.6%	여수화력발전소
동남권	자동차	40.8%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자동차 부품	27.7%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 현대위아 창원 공장, 현대모비스 창원 공장, 한온시스템 울산 공장, 성우하이텍 양산 공장, 덕양산업 울산 공장
	철강	23.8%	LS MnM 울산 제련소, 고려아연 울산제련소, 동국 제강 부산공장, 풍산 울산 공장
	정유	47.5%	SK에너지 울산 공장, S-OIL 울산 공장, SK엔무브 울산 공장, 이수화학 울산 공장
	석유화학	33.6%	SK지오센트릭 울산 공장, 롯데케미칼 울산 공장, 금호석유화학 울산 공장, SK케미칼 울산 공장
	석탄화력발전	20.5%	고성하이·삼천포·하동 화력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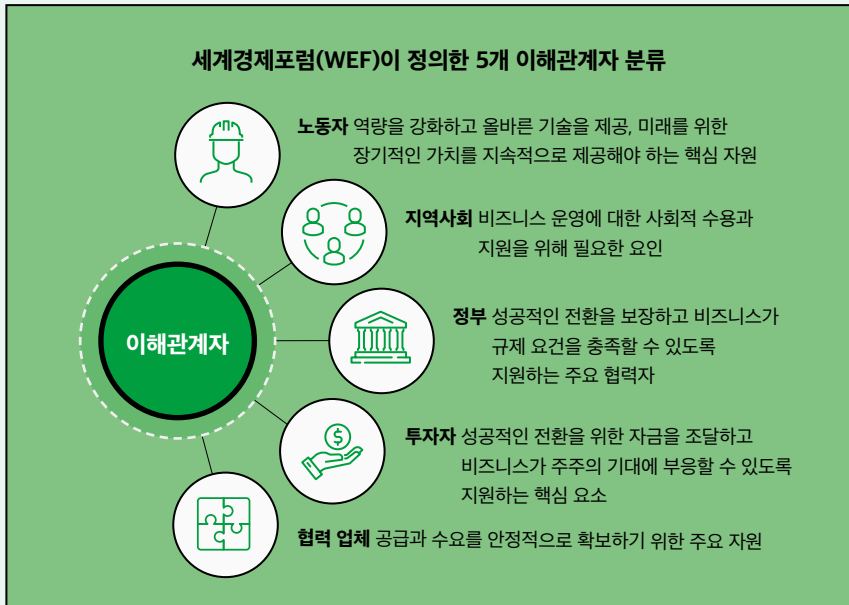
공정전환 이해관계자별 체크리스트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이사회를 위한 공정전환 가이드(The Chairperson's Guide to a Just Transition)>(2022)를 통해 기업이 공정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개의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해관계자들이 대응 과정에서 단절되었다고 느낀다면 기업의 행동에 반발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기후 목표 달성이 실패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환 과정에서 실업, 경기침체, 지역 경제 쇠락, 공급망 붕괴 등 부작용이 극대화되면, 그 피해는 노동자나 지역사회를 넘어 협력 업체, 투자자, 정부에도 미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공정전환 선두 그룹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이유다.

이에 세계경제포럼(WEF)은 전환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공정전환 초기부터 참여해 직무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안정이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선제 조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활한 공정전환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별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다.



2-1. 노동자

<p>How</p>	<p>1. 직원과 그들의 대표를 공정전환 과정에 포함시켜라 회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계획된 이니셔티브 및 식별된 잠재적 위험 등 공정전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함.</p> <p>2. 기술 투자를 통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라 녹색건물, 재생에너지, 오염 방지, 지속 가능한 물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함. 참고 르노 그룹이 유럽 최초로 순환 경제 공장으로 탈바꿈해 운영 중인 프랑스 플랑(Flins)의 리팩토리(Re-factory)의 경우, 중고차 개조부터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동차 부품 재활용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p> <p>3. 직원들의 대체 직업 탐색, 훈련 및 기술 개발 접근성을 보장하라 해고를 피하고, 숙련도 향상 또는 재교육 기회를 파악하며, 공정전환의 영향을 받는 직원들이 새로운 직무를 찾도록 지원해야 함. 교육 세션 참석을 위한 휴가, 교대 근무 및 생산 일정 재편, 해고에 대한 협상 조건에 관한 직장 내 합의를 고려해야 함.</p> <p>4. 재취업이 불가능할 때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여 직원을 보호하라 기업은 보조금을 받는 기술 및 고용 가능성 교육, 연금 시스템, 긴급 급여 지속 등 사회적 보호 조치를 회사 정책에 통합하여 직원들에게 공정전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p> <p>5. 직원 교육을 위해 교육기관과 협업하라 기업은 교육기관과 협력해 넷제로 이행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고탄소 에너지 산업 노동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p>
<p>Key Ques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전환에 따라 기술 및 인력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 시간 경과에 따른 인력 전환과 관련,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 에너지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직종별 역량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인력 확충 및 교육 계획이 있는가? ● 다양성 및 포용성과 같은 다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2-2. 지역사회

<p>How</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받게 될 영향을 다각도로 예측, 분석하라 기업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지역사회 영향도를 직·간접적, 단기·중기·장기, 화폐적·비화폐적, 혹은 정량적·정성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야 함. 특히 환경 및 건강에 대한 보장 여부는 필수적임. 2.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라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기금 조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공시설 건립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음. 3.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강구하라 관계성 확보는 투명한 피드백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선제 요소임. 4.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의사결정 기구, 이사회, 프레임워크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 5.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라 일자리 증진, 문화공간이나 상업 구역으로 전환 등 다양한 해결책 마련이 가능함.
<p>Key Ques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전환 계획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깊이와 폭을 고려했으며, 전환 과정에 대한 두려움, 문제, 관련 기대를 이해하고 있는가? ● 기업의 명성과 브랜드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기업은 우선순위에 있는 지역사회 문제, 기대 및 참여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리소스와 역량을 투입하였는가? ● 불확실하고,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의 경계와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 지역사회에 전환 관련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제공하고 있는가?

2-3. 정부

<p>How</p>	<p>정부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 기업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수립,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숙련과 인축을 위한 전환 계획 개발 등을 이행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 규제 기관 및 투자자 역할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함. ▶ 정부는 혁신적인 기후변화 해결책을 함께 만드는 것을 목표로 민간 기업, 학계 및 공공 부문에 걸쳐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함. 예를 들어, 이러한 조직 중 하나가 기후-KIC(Climate-KIC)인데, 이는 기업, 학계 및 공공·비영리 부문의 파트너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을 목표로 유럽 위원회, 국가·지역 정부 및 민간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지식 및 혁신 협의체임. ▶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옹호(Advocacy) 또는 지속적인 양방향 대화에 접근하여 건설적으로 협력하려고 노력해야 함.
<p>Key Ques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모든 사업장에 걸쳐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기대하는 공정전환 관련 요소는 무엇인가? ● 현재 또는 새로 도입되는 규정이나 정책 중 기업이 탐색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 정부는 제공하는 금융 및 기타 지원 메커니즘은 무엇이 있는지 식별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정부가 기업에 지역 경제 전략 설계에 참여하도록 요청 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고려해보았는가?

2-4. 투자자

<p>How</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력관계를 통해 극대화한 자금을 공정전환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에 배분해야 함. 2.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 보조금,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함. 3. 지역 커뮤니티나 원주민 중심 공동체에 투자하는 등 혁신적인 자본 투자 구조를 개발해야 함. <p>투자자를 위한 5가지 행동 지침(PRI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환 과정에서 고용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 요소를 파악, 주요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공정전환 요소를 통합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것. ② 전환 요소 및 공정전환 관련 성과 정보의 공개 및 개선을 요구할 것.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 ③ 모든 투자자산에 사회적 고려 사항을 통합할 것. ④ 국가 및 글로벌 수준의 정책적 의사소통과 지역 기반 파트너십에 참여할 것. ⑤ 지속적인 학습과 재검토를 이행할 것.
<p>Key Ques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조달을 극대화하고, 자금조달을 구조화*51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 지속 가능한 금융 등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 보조금,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혁신적인 지분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하였는가? ● 공정전환을 통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투자자 그룹과 협력하고 있는가? ● 토지 및 자산의 사용, 재활용, 재사용이 공정전환 우선순위와 보험 등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였는가?

2-5. 협력 업체

<p>How</p>	<p>1. 공급망 선정 기준에 공정전환 요소를 포함, 협력 업체의 넷제로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공급업체의 성장을 위한 투자와 함께, 선정 과정에서 최저가 제안 외 우선순위 수립이 필요함. - 적절한 현지 공급업체가 없을 경우, 새로운 공급업체 개발도 필요함. 이러한 과정은 곧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적 다양성을 촉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 <p>2. 협력 업체들과 새로운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라</p> <p>동료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얻은 인사이트와 정보를 협력 업체에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순제로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음.</p> <p>3. 정책 입안자, 시민 단체 등 주요 파트너와 협력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됨. - 중소기업, 교육기관, 노동조합, 시민 단체, 지역 공동체 등 전략적 파트너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원활한 전환 추진의 기반 마련이 가능함.
<p>Key Ques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협력업체의 공정전환 영향도 파악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고려하였는가? ● 새로운 공급망이 생성됨에 따라 공급망 전반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였는가? ● 우리의 고객사는 공정전환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우리는 공급업체로서 고객사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 전환 이행 시 하위 공급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51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주식, 채권, 환율 등 기초자산에 옵션, 선물 등 파생상품을 도입하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 기초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을 의미함.

공정전환 직무별 To Do List

세계경제포럼(WEF)은 <공정전환 이행을 위한 가이드>(2022) 보고서를 통해, 공정전환 이행에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공정전환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핵심 논의 주제 중 공정전환을 우선순위로 삼고, 공정전환 전략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전환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은 CEO의 책임으로도 이어진다. 이사회는 공정전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기대를 CEO를 통해 경영진 전체에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이사회에서 공정전환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 핵심 단계를 제시했다. 각 단계별로 이사회가 CEO와 경영진에게 물어볼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특히, 공정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뿐 아니라, 각 직무별로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도 필요하다. 폴 호켄을 비롯한 22개국의 세계적인 기후 연구진 70명이 참여한 ‘프로젝트 드로다운(Project Drawdown)’을 참고하여 공정전환을 위한 각 직무별 To Do List를 살펴보았다.

단계	방법	주요 질문
1	공정전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직원, 고객,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경쟁 업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전환 계획의 영향을 평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는가? 기업의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는 중에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인가? 해당 영향의 예상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공정전환 시나리오 설정의 방향은 무엇이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각 시나리오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이사회와 공정전환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적절한 의사소통 기구가 있는가?

단계	방법	주요 질문
2	전략적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전환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지 못할 때에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였는가? ● 성공적인 공정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원하는 결과가 명확하게 정의되었는가? 이해관계자들이 그 결과를 정의하는 데 참여하였는가? ● 기업 전략과 핵심 비즈니스 운영에 공정전환 및 이해관계자 협업을 포함시켰는가? ● 공정전환 약속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노동기구(ILO) 표준 등 탈탄소화 약속을 어떻게 통합·연결할 것인가? ● 우리는 경제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다른 조직들과 협력하기 위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합류할 것인가? ● 공정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비즈니스 운영 모델에 필요한 변경 사항은 무엇인지 식별하였는가?
3	우선순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전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명확하고 투명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가? ● 공정전환 이행 시 우선시해야 할 주요 이해관계자와 이슈는 무엇인가? 이러한 우선순위를 얼마나 정기적으로 검토하는가? ● 공정전환을 이행하기 위해 자원(자본, 시간 및 노력)을 어디에 배분하고 있는가? ● 경영진이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및 대응 조치는 무엇이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예: 자본 배분, 자원 배분, 거버넌스, 파트너십)
4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직원, 고객 및 협력 업체, 업계 동료 및 정책 입안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개방적이고 존중을 받는 다자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는가? ● 전략 및 접근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성능 및 위험 요소를 측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및 분석은 무엇인가?

3-1. 재무(Finance)

공정전환을 통한 기업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부서와 재무 부서 간의 결합은 매우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의 기후 대응 및 지속 가능성 성과 측정에 대한 정량적 지표와 목표를 설정,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내외부의 다양한 위험 요소에 따른 재무적인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 및 투자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부서 간 연결도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Case Study

올람 아그리(Olam Agri), 지속 가능 금융팀 통해 비재무적·재무적 가치 통합

세계적인 곡물 트레이딩 기업인 올람 아그리는 자사의 지속 가능 경영 비전을 재무관리와 통합하기 위해 지속 가능 금융팀을 신설,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지속 가능성 요소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올람 아그리의 특징은 ‘다중자본 회계(Multi-Capital Accounting)’ 방식을 활용해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재무 자본뿐만이 아니라 재무 활동이 환경 자본, 인적 자본,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이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올람 아그리는 이를 통해 여러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물이나 토지 사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비용을 회계 장부에 추가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사용한 결과, 농민들의 친환경 농법 활성화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다중 자본적 관점에서 이득이며, 자사의 탄소중립 목표와도 부합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공급망 지속 가능성 관리 플랫폼 ‘엣소스(At Source)’를 출시해, 농민 약 90만 명의 친환경 농법 교육, 기술 지원, 종자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⁵²

재무 부서 공정전환 To Do List

재정 투자

- 기업의 투자 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것.
 - 화석연료 및 삼림 벌채를 초래하는 사업의 투자를 최소화할 것.
 - 기후 솔루션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편할 것.
 - 투자 분야의 에너지 전환 원칙을 수립할 것(탈석탄 선언, 석유 시추 사업 신규 용자 금지 등).

대출·용자

-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와 대출 및 용자 현황을 비교하여,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것.

현금

- 윤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은행국제연합(GABV, 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소속 은행, 넷제로 선언 기관 등의 ESG 요소를 고려해 은행을 선정하고, 기업의 잉여현금을 저축할 것.
- 기업의 중요 재무 서비스를 제외한 부수적 재무 서비스 및 잉여현금 저축은 가치 지향성이 높은 은행을 주로 활용할 것.

협력 업체 및 채무자

- 지속 가능성 지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할 경우 이자율이나 계약 조건에 혜택을 부여할 것.

행동 가이드

-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기후변화 목표를 파악하고, 해당 요소들이 재무 부서의 목표와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
- 기업이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 중 부서 및 개인의 성과 목표와 통합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는 어디이며, 이들은 화석연료 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및 삼림 벌채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가?

참고 Reference

조직 내 영향력 매핑을 위한 Tool

이 도구는 능력 매핑 분석을 통해 팀에게 플레이어의 역량에 대한 철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Climate Intrapreneurs

재무 부서 직원의 기후변화 행동 적용 가이드



The Carbon Bankroll

기업의 자원 사용과 기후변화 영향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



3-2. 대관(Government Relations & Public Policy)

기업의 대관팀 혹은 CR(Corporate Relation)팀의 경우 공정전환 이행 과정에서 민감한 이해관계자별 갈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이해관계자별 우선순위를 정하며, 최적화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해 이를 기업의 전략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

GRI 표준에서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GRI 표준은 크게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안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이 제기한 중대한 지속 가능성 이슈 등 3가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관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규제 기관의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공정전환 및 탈탄소 사업 포트폴리오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뤄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Case Study

머스크(Maersk),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 관여

세계 최대 해운 회사 중 하나인 덴마크의 AP 몰레르 머스크는 단순히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해운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첫째,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 및 국제 이니셔티브에 적극 가입, 자사를 넘어 산업계 전반의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연료의 도입을 위한 이니셔티브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설립한 기업 친환경 기술 투자 연합인 퍼스트무버연합(First Movers Coalition)에 창립 멤버로 참여, 2030년까지 선박 운영의 5%를 탄소제로(Carbon-zero)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선박업계의 친환경 연료 사용을 독려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운업계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연맹(Getting to Zero Coalition)에도 창립 멤버로 참여해 친환경 연료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넷제로 정책 달성을 위해 정부 및 주요 국제기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정부에 정책 의견서, 서한, 기자회견, SNS 게시글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 있으며, 실제 LNG 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또 UN 주도의 기후 회담,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화석연료 선박 제조 금지, 화석연료 탄소세 등의 정책 관여 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 탄소중립 전문 기관(Maersk Mc-kinney Center for Zero Carbon Shipping) 설립을 통해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에 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은 2050 해운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인프라, 사업전략, 정책을 명시한 통합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각국의 탄소세,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 등을 분석, 정책 변화에 따른 넷제로 시나리오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53

대관 부서 공정전환 To Do List

- 정책 및 규제**
- 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정책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우선순위를 설정했는가?
 -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기업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 해당 스탠스(Stance)가 기업이 제시한 기후변화 관련 목표와 부합하는가?
 - (부합하지 않는다면) 대관 차원에서 기후변화 행동 강화에 대해 논의할 것.
 - 기업 차원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산업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
 - 기업이 기후 정책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예: Ceres Policy Network)에 참여하거나 산업협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정책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ESG팀, 재무팀과 협력해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지할 것.
- 정책 지지**
-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팀과 협력해 기후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것.
- 산업협회**
- 기업이 산업협회에 속해 있다면, 협회 내 기후변화 정책에 반대하는 기관을 파악하고, 사내 임원을 설득해 산업협회 내 기후변화 행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만약 협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한다면 탈퇴를 고려해볼 것.
- 내부 소통**
- 기후변화 관련 정책 현황 및 미래 전망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고, 이를 사내 다른 부서와 공유해 조직 내 모든 부서가 국가 기후변화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
- 행동 가이드**
-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기후변화 목표를 파악하고, 해당 요소들이 대관 부서의 목표와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
 - 기업이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 중 부서 및 개인의 성과 목표와 통합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 당신이 속한 부서 및 회사의 임원들은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지지하는가? (정책 입안자와 교류, 공개 서한 작성, 기후변화 정책 관련 행사 참여 등의 행동을 수행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 Reference

Ceres Policy Network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 연합



3-3. 인사(HR)

2025년에는 글로벌 노동인구의 72%가 MZ세대이며, 이들 중 대다수는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또 가치와 목적이 함양된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장기 근속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54

각 기업의 인사팀은 공정전환 이행 과정에서 목적(Purpose) 중심의 사내 문화를 조성하고, 친환경 장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포용적 지속 가능 경영을 조직에 내재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특히 각 조직원들의 지속 가능성 역량을 업스킬링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마련 등 미래 지속 가능성 직무와 역할에 대한 예측과 교육,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

Case Study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 HR work in the Transformation

자동차산업은 산업전환에 가장 취약한 섹터 중 하나이다. 이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환에서의 HR 업무(HR work in the Transformation)'라는 모토 아래 인사 혁신 전략을 내놓았다.

이들의 3대 전략은 '재배치(Re-Shape)', '재교육(Re-skill)', '재충전(Re-charge)'이었다.

우선 재배치는 기업의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 직무를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선호를 반영한 미래 사업 부서(AI, 자율주행 등)에 기존 직원들을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 역량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재교육과 관련, 메르세데스 벤츠는 직원 재교육에 강조점을 두고 2030년까지 22억 달러(2조 9000억 원)를 투자해 AI 인력 양성 및 기존 직원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겠다고 선언하고 사내 대학 IT 교육 프로그램 '턴투런(Turn2Learn)' 사업을 시행 중이다. 교육 참가자는 개인의 역량 및 선호에 따라 코딩, 빅데이터 분석, AI 모델 개발 등을 학습하며, 이와 연관된 기업 프로젝트에 투입돼 실습 과정을 거친다.

재충전은 공정전환을 위해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내 이니셔티브를 수행 중이다. 일례로 리더십 2020 이니셔티브를 통해, 임직원 협력을 위한 구성원 원칙(People Principle for Cooperation)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직급, 인종, 직무의 구성원들이 실무 그룹으로 참여했다.*55

인사 부서 공정전환 To Do List

- | | |
|-----------------------|---|
| 임직원 혜택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예: 주거용 태양광 설치, 저탄소 운송수단 사용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 ● 직원들이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임직원들을 매치하고, 참여 시 혜택을 부여할 것. ● 기업에서 제공하는 임직원 대출, 보험 등의 서비스에 저탄소 인센티브를 추가할 것. |
| 임직원 보상 및 역량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요구사항, 인사 고과, 보너스 등의 HR·보상 영역에 지속 가능성 요소를 추가할 것. ● 신입 사원, 중간관리자, 임원 등 각 직급별 교육에 지속 가능성 교육을 추가할 것. |
| 조직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이 기후변화 관련 요소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예: 사내 포럼, 간담회 등)할 것. ● 기후 전문가, 환경운동가, 친환경 기술 전문가 등을 초청해 사내 구성원들과 교류하는 장을 마련할 것. ● ESG팀 및 외부 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의 친환경 직무 훈련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친환경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할 것. |
| 조직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 전략기획팀과 협력해 조직 차원의 기후변화 성과 지표를 개발할 것.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기업의 책임 범위를 고려할 것. ● 조직의 비즈니스 출장 정책에 저탄소 요소를 추가할 것 (예: 탄소 집약도가 높은 항공기보다는 기차 우선시). |
| 행동 가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기후변화 목표를 파악하고, 해당 요소들이 인사팀의 목표와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 ● 기업이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 중 부서 및 개인의 성과 목표와 통합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 임직원이 기후변화 행동을 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편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는가? ● 임직원이 기후변화 행동을 수행했을 때, 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가? |

3-4. 법무(Legal)

영국 공립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산하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발표한 <기후 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Global Trends in Climate Litigation 2023)> 보고서*56에 따르면, 1986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전 세계에서 2,341건의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 그 가운데 절반 가까운 1,157건은 2015년 이후 제기됐다.

특히 소송의 대상은 기존 화석연료 산업으로 대표되던 에너지 기업이 아닌 항공, 농업, 의료 등의 사업에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 워싱(Climate Washing) 소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후 워싱은 그린 워싱 내에서도 기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뜻한다. 기업의 허위 주장,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또한 기후 워싱에 포함된다.

기업 법무팀 및 컴플라이언스팀의 경우, 강화되는 글로벌 기후 환경 규제와 관련해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를 적극 감지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

Case Study

글로벌 법무팀의 ESG 직무 전환 과정

글로벌 사내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2022년 ESG 및 CSR 직무를 담당하는 기업 법무팀은 80%에 달한다. 2년 전 그 비율이 15%였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ESG 직무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ESG 분야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으며, 기업의 평판 리스크가 실제적인 재무적 영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국의 다국적 호텔 및 레스토랑 기업인 휘트브레드(Whitbread)의 경우, ESG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응해 법적 중대성 평가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치사슬 전체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팀이 ESG 업무를 맡게 됐다.

유니레버의 경우, '지속 가능성 글로벌 선두 기업'답게 이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평가, 전략, 행동 계획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법무팀에서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 분야의 상당수가 연성법(법적 구속력이 없는 준법률)이었고, 연성법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전략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발견해 법무팀에서 인권 분야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맡게 됐다.

미국 배터리 기업인 아메리칸배터리팩토리(ABF, American Battery Factory)의 경우, 공급망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대한 법적 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여러 중대 리스크가 발견됐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 공급망 ESG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전체를 관장하는 계기가 되었다.*57

법무 부서 공정전환 To Do List

기업 내 거버넌스

- 이사회의 보상위원회와 협력해 C-레벨의 보상을 회사의 기후 목표 달성과 연계할 것.
- 모든 이사회 안건에 기후 관련 주제를 포함할 것.
- 이사회에 기후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
-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SASB 공시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위한 교육 세션을 마련해 이러한 기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회사의 주요 위험과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
- 이사회의 신탁 의무에 따라 기후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여 이사회 차원에서 기후 영향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함.
- 이사회와 협력해 명확하고 관련성 있는 핵심 성과 지표를 통해 기후 관련 목표를 설정해야 함.
- ESG 활동에 대한 감독 권한이 이사회에 있음을 확인할 것.
- 이사회 인사 및 거버넌스 관련 위원회와 협력해 기후 및 다양성 요건을 이사회 책임으로 통합할 것. 기후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영입할 것.
-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차원에서 추진하는 기후 대응 전략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함(기후 운동가, 젊은 이사, 흑인 및 원주민 이사, 유색인종, 여성, 기타 대표성이 낮고 역사적으로 소외된 그룹의 구성원).

외부 법률 자문 회사와 협력

- 고객의 탈탄소화 전략에 부합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화석연료 또는 기타 채굴 산업과 일치하지 않는 로펌과 협업할 것.
- 주기적으로 로펌들과 일을 하는 경우 기업의 기후 목표를 반영한 ‘외부 법률 자문 회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
- 로펌에 배출량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것 (기업이 Scope 3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

법적 계약

- 기후 위험과 영향을 다루는 계약 문구를 채택할 것.
- 조달·구매팀과 협력하여 고객 및 공급업체가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문구를 개발할 것.
-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을 숙지하고,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위험을 직간접적으로 할당(Allocate)하는 계약 문구를 채택할 것.
- 이는 특히 부동산 거래에 관련이 있으며 공급망 관련 위험에도 해당될 수 있음.

- 보험회사와 협력해 기후 관련 재해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와 기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할 것.
- 거래와 관련 실사를 수행할 때 거래 상대방의 기후 위험 노출도를 파악할 것.
- 재무팀과 협력해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와 녹색 채권 또는 녹색 대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
- 자본금을 조달할 때 기후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사용할 것을 약속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것.
- 인사팀과 협력해 직원의 퇴직금에 대한 법적 요건을 파악하고, 직원들에게 경쟁력 있는 재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기후 안전 기본 퇴직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정책 및 규제

-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공공 정책팀과 협력해 변화하는 환경법과 기후 공시 규정이 비용 편익 분석과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사회를 대상으로 교육할 것.
- 배출량 데이터 공개를 준비할 것.
- 상장기업은 조만간 Scope 1~3 배출량을 보고할 것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음).

행동 가이드

- 회사의 현재 이사회 구성을 살펴볼 것.
 - 이사회나 회사 차원의 지속 가능성 및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와 공약들을 파악하고 있는가?
 - 이를 기반으로 한 직무 관련 프레임워크를 실무진에게 제공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참고 Reference

Competent Boards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대상의 ESG,
기후 교육 제공



Journey to net zero for in-house legal teams

사내 법무팀이 마주할 수
있는 기후 관련 논의와
조치에 대한 개요 제공



Lawyers for Net Zero (General Counsel Sustainability Leaders)

사내 법무팀이 마주할 수
있는 기후 관련 논의와
조치에 대한 개요 제공



3-5. 마케팅(Marketing)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활동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는 칸타(Kantar)의 '2022 지속 가능성 섹터 지표'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는 아시아에서 환경문제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 세계 32개국 38개 산업군의 소비자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비자 1만 1,000명이 참여했다.

특히 한국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뉴스로 접하는 사회와 환경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고, 40%는 사회 기여 활동을 펼치는 브랜드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 소비자 2명 중 1명은 지속 가능한 소비가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한편, 응답자의 87%는 기업(브랜드)이 전개하는 지속 가능성 활동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46%는 '브랜드가 상업적 목적의 보여주기식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를 우려하고 지속 가능성, 넷제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의 마케팅팀이 고려해야 할 사항 또한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지속 가능성 선호도를 파악하고,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고려하며, 기업 내부적으로는 고유의 지속 가능성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기업의 마케팅팀은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지속 가능성 프리미엄을 입혀, 장기적으로 기업의 평판과 브랜드까지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Case Study

타깃(Target), Target Zero 이니셔티브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깃은 2025년까지 자사 브랜드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100% 재활용 혹은 퇴비로 쓰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2040년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탄소 제로를 실현하는 지속 가능성 목표인 '타깃 포워드(Target Forward)'를 설정하고 '타깃 제로(Target Zero)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 업체 목록을 구성하고, 제품의 재활용·재사용·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포장 등 환경 영향력에 따라 제품을 평가해,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선별한 후, 특별 마케팅을 실시한 것이다.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 인증 교육을 실시했다. 마케팅팀에서는 친환경 제품 협력 업체에 대한 선별 기준을 마련했으며, 각 상품 파트별(뷰티, 건강 등) 담당자가 이 기준을 토대로 친환경 상품 컬렉션을 기획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특별 판매 진열대를 설치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상품을 어렵지 않게 접하도록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캠페인 역할을 한 효과도 있었다.*⁵⁸

마케팅 부서 공정전환 To Do List

- | | |
|-----------------|--|
| 고객 참여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교육과 행동 캠페인에 소비자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활용할 것.● 소비자가 스스로 기후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 E-커머스 업계에 종사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결제를 통해 기후 솔루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 기후 문제를 선도하는 다른 브랜드와 협력하고 학습하여 캠페인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 |
| 생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이 진행하는 마케팅 캠페인과 이벤트가 저탄소 및 순환 경제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 마케팅 캠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에 기후 친화적인 이미지와 캐릭터를 사용할 것.● 대행사 측에서는 화석연료 기업 및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것을 피하고, 고객 제안서에 기후 관련 고려 사항을 포함할 것.●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폐기물 제로&탈탄소 이니셔티브를 보유한 대행사를 선택하고, 모든 대행사에 지속 가능성 및 기후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문의할 것. |
| 기후 정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 정부 관계 팀과 협력해 기후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캠페인을 개발할 것. |
| 행동 가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현재 마케팅 정책이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가?● 회사의 친환경 전략들이 어떤 행동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참고 Reference

AdGreen

광고업계에 환경 영향력을 피할 수 있는 무료 리소스와 도구 제공



Patagonia's Buy Less, Demand More campaign

의류 산업이 야기하는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지적하고,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자 파타고니아에서 기획한 캠페인이다.



3-6. 조달(Procurement)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 SAP가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를 형성할 트렌드'(2022)로 꼽은 것은 '지속 가능성'이었다. 응답자의 88%는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 개선 목표를 선언했거나 마련 중이라고 대답했고, 52%만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배송 거리 단축 등의 목표를 이행했다고 답했다. 21%는 협력 업체의 지속 가능한 소싱(Sourcing)을 추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9

공정전환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업 조달팀의 역할은 점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포럼(WEF)과 베인앤컴퍼니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방안>*60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 가능 목표 중 오염 및 공해, 공정한 노동 관행 확립은 성과가 높았으나, 플라스틱 사용과 투입물 인종 및 폐기물 관리 등의 목표는 성과가 저조했다.

특히 다수의 보고서나 설문조사에서 지적하듯,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이 아닌 비용 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재무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에너지, 광물 등 천연자원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원 사용 효율을 높임으로써 탄소 배출 감축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달팀은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달 관행에 순환 경제를 통합함으로써 제품의 지속 가능성과 원산지 추적 정보를 레이블링(Labeling)하며, 특히 제품 생산과정에서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안 등에 집중해야 한다.

Case Study

월마트(walmart), Project Gigaton

월마트는 지속 가능한 조달 지침을 마련해 협력 업체의 지속 가능성 데이터를 추적한다. 나아가 공급망 지속 가능성 증진 프로그램 '프로젝트 기가톤(Project Gigaton)'을 론칭하고 협력 업체 지속 가능성 포털을 구축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협력 업체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그 성과를 보고한다. 월마트 측은 협력 업체의 목표 설정 및 배출 감축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친환경 전환 가이드 라인, 담당자 1대1 매칭 서비스, 가치사슬 단계별 탄소 배출 계산용 툴(Tool) 등을 지원한다. 특히 월마트는 HSBC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젝트 기가톤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에 성과를 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61

조달 부서 공정전환 To Do List

- | | |
|--------------------|---|
| 협력 업체 및 공급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사업의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사의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협력 업체를 발굴 및 선택할 것. 자사에서 주기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부품 중 환경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
|--------------------|---|

- 운영팀과 협업해 지속 가능한 협력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협력 업체로 하여금 과학 기반 감축 목표(Science-based emissions reduction targets)를 채택하도록 하는 회사 정책을 수립할 것. 이 과정에서 규정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정책도 개발해야 함.
- 협력 업체 다양성 및 윤리적 관행과 관련된 지침 개발을 통해 '기후정의 렌즈'를 적용할 수도 있음.
- 현지 생산, 저탄소 원자재 운송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

제품 디자인

- 자사 브랜드 제품을 위한 직접 조달 업무를 담당할 경우, 디자이너와 협업해 순환 경제에 최적화된 저탄소 원재료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것.

데이터

-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고객이 당신의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에 투자할 것. -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및 데이터 엔지니어와 함께 제품의 사용과 폐기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상품과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음.

행동 가이드

- 조달 부서의 목표가 자사의 지속 가능성 및 기후 관련 목표와 동일 선상에 있는가? 회사와 팀, 그리고 개인의 성과 목표를 같은 맥락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
- 지속 가능한 구매 관련 지침이 있는가? 협력 업체에는 어떤 사항이 요구되는가?
- 전 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가 실시되고 있는가?
- 조달 직무로서 어떤 영향력과 의사 결정권이 있는가? 또는, 현재 의사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기후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기후 행동에 대한 관심을 주요 동료들과 공유하고 반응을 측정해볼 것.
- 공급망 전반에 변화를 주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 예를 들어, 현지 생산자 및 협력 업체와 협력하여 운송 시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저탄소 원자재 운반을 촉진할 것.

참고 Reference

Ellen MacArthur Foundation

순환 경제와 관련된 개념부터 실무적 틀까지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용어 정리, 산업 부문별 순환 경제 적용법, 케이스 스터디 등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Procuring a Regenerative Economy

이 보고서는 CPO(Chief Procurement Officer)가 재생 경제(Regenerative economy)로 전환하기 위해 구매 시 의사결정에 변화를 주는 비즈니스 리더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조달 전문가는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



Future-Fit Business procurement guide

조달 전문가가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지침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가이드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행, 기업이 사회 환경적 가치와 자사 조달 절차를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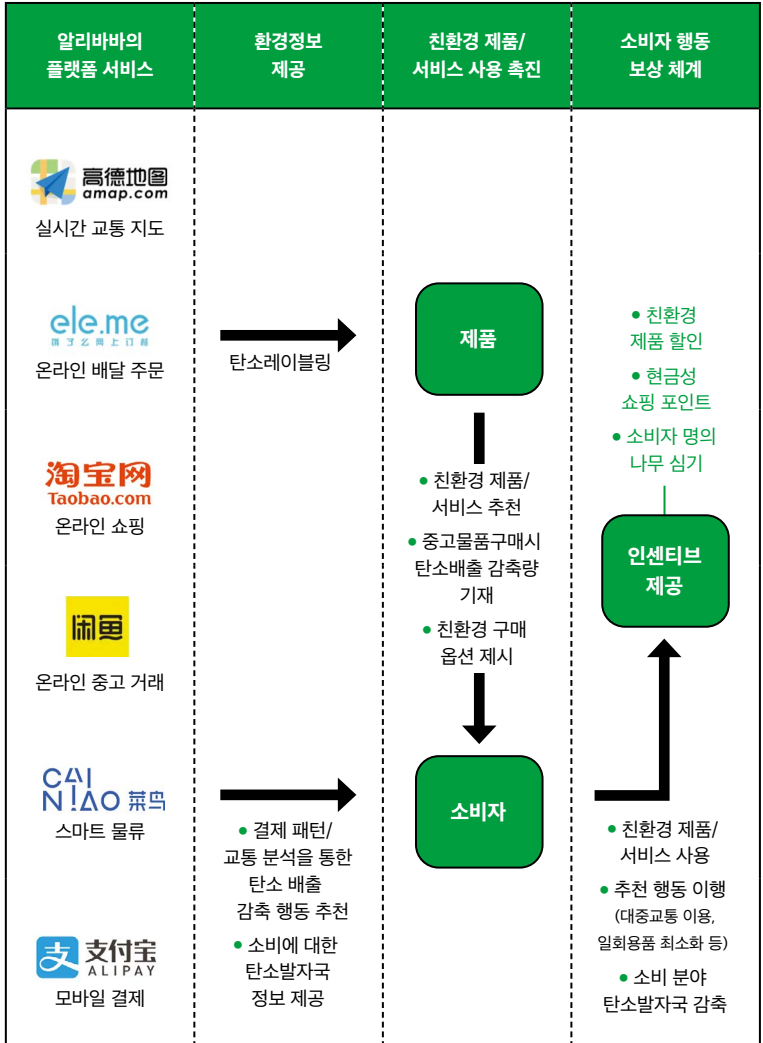
3-7. 영업 및 고객 지원 역할(Sales and Client-Facing Roles)

IT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기업 운영을 예전처럼 기밀 사항으로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의 조직문화가 권위적이거나 보수적일 경우 이러한 정보는 직장인 소셜 플랫폼인 블라인드, 잡플래닛 등에 고스란히 공개된다. 이 때문에 기업의 영업 및 고객 대면팀은 공정전환 및 탈탄소 전환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기업 내부에 잘 전달해주고, 또 기업의 전환 철학과 과정을 잘 습득해 이를 외부에 대변해주는 '브리지'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규 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성 기반의 미래 예측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Case Study

알리바바(Alibaba), I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소비 촉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제품의 탄소 레이블링 정보를 공개한다. 알리바바의 중대형 브랜드 B2C 쇼핑 플랫폼 T몰은 플랫폼 내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탄소 레이블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라벨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며, 친환경 제품의 경우 일반 제품 대비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와 탄소의 양을 표기한다. 플랫폼 내 3,000여 개 업체가 제품 약 30만 개의 탄소 정보를 T몰에 전달해 이 라벨을 활용하고 있다(2022년 4월 기준). T몰은 점진적으로, 전자제품 외의 모든 상품에 탄소 레이블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알리바바 측은 E-커머스 산업계 전반의 탄소 정보 공개 도입을 위해 업체들과 협력해 표준화된 E-커머스 산업의 탄소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는 친환경 소비 모바일 플랫폼 ‘Carbon 88’을 오픈했다. 알리바바 그룹 생태계(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중고 거래 등) 내에서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탄소 감축량을 측정해주는 것이다. 외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페에 자신의 컵을 가져오는 등 저탄소 소비를 하면 이 또한 탄소 감축량을 측정해 포인트 형태로 보상해준다. 현재 약 2,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62

영업 및 고객 지원 역할 부서 공정전환 To Do List

- | | |
|-------------------|---|
| 가격 및 수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비용을 제품과 서비스에 통합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팀 및 재무팀과 협력하고, 이 비용을 탄소 배출 저감과 격리에 재투자할 것. |
| 고객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석연료 외 기타 추출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것. ● 고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마케팅팀과 협력하여 고객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고객 대상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기후 목표를 조사하고, 당신의 제안서에 위 아이디어를 통합할 것. - 기후 옹호적 직업 종사자를 더 많이 고객화할 것. ● 고객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때 기후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장할 것. ● 만약 당신이 디자이너라면, 당신의 직업이 사회 환경적 정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
| 영업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재사용 용도 개발 및 기타 낭비를 줄이는 조치가 있을지 고려해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보다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두기 - 제품의 보증 연장 - 제품의 수리 기회 확대 |
| 렌탈 옵션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부서의 관리자인 경우 지속 가능성 목표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예: 과학 기반 기후 목표가 있는 기업 대상으로 실적을 올린 경우). |
| 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집약적인 출장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비행기 대신 기차 등 저탄소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비대면 미팅을 지향할 것. |
| 대화 및 행동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고객 및 고객사 리더와 네트워크를 이뤄 그들의 기후 목표를 이해할 것. 그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 고객과 함께하는 행사에서 기후 위기 문제를 제기할 것. ●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는 직원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것. 함께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고민하고, 전자 회의 등 미팅에서 기후 관련 우려를 표할 것. |

행동 가이드

- 영업 부서의 목표가 자사의 지속 가능성 및 기후 관련 목표와 동일 선상에 있는가? 회사와 팀, 그리고 개인의 성과 목표를 같은 맥락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
- 화석연료(또는 기타 추출 및 오염) 산업과 연관된 고객이 있는가? 고객과 함께할 수 있는 행동 중 널리 채택된다면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동시에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영업 직무로서 어떤 영향력과 의사 결정권이 있는가? 또는, 현재 의사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기후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기후 행동에 대한 관심을 주요 동료들과 공유하고 반응을 측정해볼 것

참고 Reference**Clean Creatives**

광고 및 크리에이티브 산업 종사자들이 화석연료 고객 거부를 약속하는 캠페인이다. 개인, 크리에이터, 에이전시, 고객사 단위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재 2,000명의 크리에이티브 종사자와 860개의 에이전시가 서약을 완료했다.

**Climate Designers**

모든 산업 분야의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을 위한 글로벌 허브이며, 기후 행동에 크리에이티브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리소스 및 툴을 통해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업에 기후 이슈를 통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Microsoft's Green Design Principles**

디자이너가 디지털 제품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녹색 디자인 원칙은 크게 계획과 행동 단계로 구분되며, UX·색상·폰트 등 디자인 구성 요소별 지침이 소개되어 있다.



- * **52** IFAC - “Case Study: The Role of the Sustainability Finance Team in Driving Impact at Olam Agri” (2022.5.26).
- 53** MAERSK - Sustainability Report (2022).
- 54** Microsoft - Sustainability. Good for Business. Executive Playbook (2021).
- 55** Mercedes-benz - “HR work in the transformation”
- 56** LSE -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3 snapshot” (2023.05.26).
- 57** Center on the Legal Profession Harvard Law School - "General Counsel Face ESG Headwinds" (January/February 2023).
- 58** Target Corporation - “Your Fave Products, Designed For Zero Waste — Say Hello to Target Zero” (2022.3.09).
- 59** 임팩트온 - 김효진 기자, ‘지속가능한 공급망으로 차이를 만드는 기업은 어디?’ (2022.01.25).
- 60** S&T GPS - ‘WEF,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방안 발표’ (2020.10.29).
- 61** Walmart Sustainability Hub - Project Gigaton
- 62** Jing Daily - Zihao Liu “Alibaba Answers China’s Growing Calls For Sustainability” (2022.8.11).

부
록

**공정전환 글로벌
주요 이니셔티브 및 기관**

We Mean Business Coalition

기관 소개	탈탄소와 공정전환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리소스 플랫폼
홈페이지	https://www.wemeanbusinesscoalition.org/
참고 자료	https://www.wemeanbusinesscoalition.org/just-transition-resource-platform/

위민비즈니스연합(We Mean Business Coalition)은 비즈니스는 제로 카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 기업 연합이다. 총 시가총액이 24.8조 달러에 달하는 1,2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로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업 활동과 정책 변화를 주도하며,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전환 리소스 플랫폼(Just Transition Resource Platform)은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비팀(The B Team), 위민비즈니스연합(We Mean Business Coalition)이 공동 개발한 리소스 플랫폼으로, 공정전환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에 실무적 가이드와 툴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공정전환 리소스 플랫폼은 기업의 공정전환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기후 목표(Climate Ambition), 기후 행동(Climate Action), 옹호(Advocacy), 책무성(Accountability) 4가지로 나누고, 이에 대해 실무자가 참고할 만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각각의 분야는 다시 4가지 내외의 단계별 접근법으로 세분화되는데, '기후 목표'의 경우 기업에 제시하는 가이드는 아래와 같다.

1. 넷제로를 위한 공정전환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2. 당사의 전환이 불러올 영향을 사회적 맥락에서 측정 및 이해하라.
3.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라.
4. 행동을 촉진하라.

현재 공정전환을 계획 중이거나, 당사의 공정전환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려는 기업 실무자라면 공정전환 리소스 플랫폼에서 단계별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단계별로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CA100+(Climate Action 100+),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발간하는 연관 자료를 게시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얻기에도 매우 유용하다.

The B Team

기관 소개	기업의 인권과 환경에 대해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https://bteam.org/
참고 자료	https://bteam.org/our-thinking/reports/just-transition-a-business-guide

비팀은 2013년 설립해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다. 인류와 지구의 안녕을 위해 더 나은 비즈니스 방식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의 움직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권·기후와 관련된 비즈니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이 공정전환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정전환센터(Just Transition Centre) 운영과 함께 <공정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가이드>를 발행했다. 이 책에는 운영 조언과 전술, 여러 사례 연구, 기후 행동이 기업 인력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업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청정에너지 경제에 건설적인 방식으로 직원, 노조,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기관 소개	공정전환 트렌드를 짚어주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홈페이지	https://www.bsr.org/en/
참고 자료	https://www.bsr.org/en/reports/just-transition-planning-process-for-business-toolkit

BSR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지구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컨설팅 기업이다. 아시아, 유럽, 북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기업 컨설팅, 리서치, 부문 간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과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BSR의 멤버 네트워크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등 300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했으며, BSR은 네트워크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평등과 지속 가능성 기반의 경제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공정전환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하는 실무자라면 BSR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BSR가 초점을 맞추는 주요 영역은 크게 '기후변화', '평등·포용성 그리고 정의', '인권', '자연', '공급망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경영' 6가지인데, BSR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아티클을 배포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간 리포트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공정전환 관련 트렌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한편 자문 서비스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 분류법을 차용하여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으며, BSR에서 제공하는 가치를 분야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각 분야의 현황 및 이슈를 파악하기에도 용이하므로 자신의 산업이 추구할 수 있는 공정전환 방식 및 사례가 궁금하다면 BSR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Just Transition Initiative

기관 소개	공정전환 달성 방법과 현안을 정리해둔 글로벌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justtransitioninitiative.org/
참고 자료	https://justtransitioninitiative.org/resource-library/

공정전환 이니셔티브(JTI)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과 기후투자기금(CIF)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혁신적 변화를 통해 공정전환을 달성하는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파트너십이다.

공정전환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구성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공정전환에 대한 기본 개념과 역사를 정리해 공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벤트, 팟캐스트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으며,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선별된 리소스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였다.

이에 더해 리소스 라이브러리를 확장하여 공정전환과 관련된 사례 연구 분석, 자문 및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 권장 사항과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공정전환과 관련된 필수 문헌과 자체 분석 자료를 필터를 통해 국가별, 산업별, 주제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정부 정책 자료부터 학술 연구 자료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다.

World Economic Forum

기관 소개	임팩트 창출을 위해 글로벌 의제를 형성하는 글로벌 비영리재단
홈페이지	https://www.weforum.org/
참고 자료	https://www.weforum.org/agenda/2023/09/just-transition-climate-change/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1971년 설립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글로벌 비영리재단이다. 글로벌, 지역 및 산업 단위의 의제를 형성하기 위해 정치, 비즈니스, 문화 등의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한 민관협력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세계의 지도자, 정책 입안자, 기업 실무자는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경제발전과 지속 가능성 등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참여하고, 이는 부문 간 협력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촉진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니셔티브 발족, 산업 혁신, 경제적 솔루션,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 및 협업을 통해 임팩트를 창출한다. 예를 들어 넷제로와 관련해서는 에너지전환위원회(Energy Transitions Commission),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RMI), 위민비즈니스연합과 '미션 파서블 파트너십(Mission Possible Partnership)'을 설립하여 탄소 저감이 어려운 산업 부문(Hard-to-abate sector)의 기후 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홈페이지에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간행물 및 영상이 정기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으며, 공정전환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의 어젠다 아티클(Agenda article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비즈니스, 정치, 사회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미팅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므로, 이러한 이벤트에 직접 참여한다면 각국의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논의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World Benchmarking Alliance

기관 소개	기업의 넷제로와 공정전환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글로벌 기관
홈페이지	https://www.worldbenchmarkingalliance.org/
참고 자료	https://www.worldbenchmarkingalliance.org/just-transition/

세계 벤치마킹 연합(WBA)은 UN과 기업 및 지속 가능 개발위원회(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가 협력하여 만든 기관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기업 활동의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30년 어젠다를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7대 의제(금융, 디지털, 자연과 생물다양성, 농식품, 도시, 탈탄소 및 에너지, 사회)를 설정하고 2,000개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벤치마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사회 분야에서는 젠더·기업 인권 벤치마크를, 농식품 분야에서는 해산물 관리·종자 관리 벤치마크를, 탈탄소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공정전환 벤치마크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다.

세계 벤치마킹 연합(WBA)은 특히 탈탄소 및 에너지 관련 벤치마크 설정을 위해 저탄소 사회를 달성하는 데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4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전환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함께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공정전환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다.

2021년부터 공정전환을 위한 기업 평가용 벤치마크 지표를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탈탄소화 및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범위 내에 있는 180개 기업을 평가했다. 석유 및 가스 회사 100개, 전기 유틸리티 회사 50개, 자동차 제조업체 30개 등 총 180개 기업을 평가한 결과는 세계 벤치마킹 연합(WBA) 웹사이트에 게시했으며, 각 산업별로 탈탄소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벤치마크도 함께 공개하였다.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기관 소개	200개 이상 기업의 CEO 주도로 설립한 글로벌 리딩 커뮤니티
홈페이지	https://www.wbcsd.org/
참고 자료	https://www.wbcsd.org/Pathways/Energy/Resources/Achieving-a-just-transition-in-the-energy-system

세계 지속 가능 발전 기업위원회(WBCSD)는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CEO들이 모인 국제 협의회이다. 1995년 기업이 지속 가능성 관련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립했으며, 약 30년 이 지난 현재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글로벌 리딩 커뮤니티로 거듭났다. 대표적인 회원사로는 애플, 3M, 아마존, IBM 등이 있으며,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지속 가능 발전 기업위원회(WBCSD)가 주안점을 두는 3가지 주제는 '기후 위기 대응', '자연 회복력', 그리고 '불평등 해소'이다. 2050년까지 인류가 지속 가능한 지구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전환의 기본 요소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을 재구성하는 한편 기업 실적과 기후 위기 대응이 동일 선상에 놓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한다.

세계 지속 가능 발전 기업위원회(WBCSD)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각종 틀과 간행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에너지 부문의 공정전환 인사이트 및 사례를 담은 보고서 <Achieving a just transition in the energy system>를 발표하였다. 더불어 산업 내부자 입장에서 작성한 아티클 등 지속 가능성 관련 다양한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limate Action 100+

기관 소개	탄소 고배출 기업의 넷제로와 공정전환을 지지하는 투자자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https://www.climateaction100.org/
참고 자료	https://www.climateaction100.org/news/2023-proxy-season-just-transition/

CA100+는 아시아 투자자 그룹(AIGCC), 세레스(Ceres), 기후변화에 관한 투자자 그룹(IGCC),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자 그룹(IIIGCC), 책임투자원칙(PRI) 등 68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700 개 이상의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모인 이니셔티브로, 기후변화 거버넌스 개선, 배출량 감축, 기후 관련 재무 공개 강화에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CA100+는 넷제로 선언 기업의 성과를 추적하여 투자자에게 기업의 탈탄소 비즈니스 전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벤치마크 평가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CA100+는 10가지 지표를 마련해 벤치마크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공정전환' 지표를 평가에 통합시켰다. 공정전환을 넷제로 벤치마크 평가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또한 투자자들은 탈탄소화 전략이 노동자, 지역 사회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강력한 공정전환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는 기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과 규제의 변화로 인해 야심 찬 탈탄소화 계획이 장려됨에 따라, 공정전환 계획은 필요한 행동의 속도와 규모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하기 때문에, CA100+는 공정전환을 매년 진행하는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공정전환과 관련된 주주 제안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현황을 함께 공시하며 향후 기업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공정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기관 소개	세계 노동문제를 다루는 UN 전문기구
홈페이지	https://www.ilo.org/global/lang--en/index.htm
참고 자료	https://www.ilo.org/global/topics/green-jobs/WCMS_824102/lang--en/index.htm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정의, 인권 등 세계 노동문제를 다루는 UN 전문기구이다. 1919년 사회 정의가 지속적인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필요성으로 인해 창립했으며, 현재는 187개 회원국의 정부, 고용주, 노동자가 속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미션은 사회정의와 인권, 그리고 노동 권을 증진하는 것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 유관 프로그램 고안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사회정의 향상, 양질의 일자리 촉진(Advancing social justice, Promoting decent work)’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수년 간 논의한 끝에 ‘국제노동기구(ILO) 공정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공정전환의 비전 ▲당면한 기회 및 도전 과제 ▲제도적 지침 제안이 기술되어 있다.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LO)는 ‘괜찮은 일자리 의제(Decent Work Agenda)’를 통해 노동자 보호, 공정한 수입, 건강 및 안전 등의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공정전환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였다.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기관 소개	기업의 지속 가능성 관행 이행 방법을 연구하는 UN 산하 특별 기구
홈페이지	https://unglobalcompact.org/
참고 자료	https://unglobalcompact.org/take-action/think-labs/just-transition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글로벌 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부패 분야에서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약속하기 위해 서명하는 이니셔티브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인권, 노동, 환경, 반 부패와 관련된 10가지 보편적 원칙에 따라 기업의 전략과 운영을 조정하고 사회적 목표와 SDG 이행을 진전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

2000년 7월 발족한 이래, 전 세계 177개국 1만 9,000여 회원(1만 6,000여 기업 회원 포함)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심포지엄, 워크숍, 콘퍼런스 개최 및 기업 지속 가능성·ESG 관련 연구·조사, 정책 제안, 네트워킹과 대화의 장 마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하여 회원사가 10가지 보편적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및 금융 문제에 대한 20년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세부 주제를 다루는 싱크랩(Think Lab)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공정전환을 다루는 싱크랩을 만들어 기업의 공정전환 이행을 위한 연구 및 이해관계자 관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정전환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싱크랩(UNGC Think Lab on Just Transition)’은 주요 기업, 학계, 시민사회, 정부 및 UN이 모여 공정전환과 관련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27개 기업과 15개 기관이 모여 공정전환의 핵심 영역, 주요 비즈니스 과제 해결, 정책 옹호 식별 기회와 모범 비즈니스 관행을 파악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전환과 관련된 개발, 기후 적응, 금융, 협력 업체, 재생에너지 등 5가지 출판물을 발간하여 기업의 공정전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Climate Investment Funds

기관 소개	공정전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전문 펀드
홈페이지	https://www.cif.org/
참고 자료	https://www.cif.org/topics/just-transition

기후투자기금(CIF)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관련 사업에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한 다자간 기금이다. 기후투자기금(CIF)은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세계경제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스마트한 기후 계획 및 행동을 지원한다. 주로 대규모, 저비용, 장기적 관점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후투자기금(CIF)이 조달한 자금은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미래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한다.

공정전환을 위해 크게 3가지 핵심 영역을 규정하였는데, ‘개념 설계(Conceptual grounding)’, ‘기후투자기금에서 더 나아간 공정전환 원칙의 주류화(Mainstreaming just transition principles across CIF and beyond)’, ‘공정전환 운용(Operationalizing a just transition)’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공정전환 운용은 실제로 공정전환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집중하며, 기업이 공정전환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직접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때 초기 계획의 모호성 및 복잡성이 공정전환의 주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만든 것이 ‘기후투자기금 공정전환 계획 툴박스(CIF Just Transition Planning Toolbox)’이다.

기후투자기금(CIF) 공정전환 계획 툴박스는 기업 실무자에게 포괄적인 전환 계획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평등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도우며, 기업의 공정전환을 도울 수 있는 핵심 콘셉트와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기후투자기금(CIF) 공정전환 계획 툴박스는 크게 ‘이해관계자 동원’, ‘목적과 비전 개발’, ‘임팩트 및 기회 측정’, ‘전략 고안’, ‘자원 및 파트너십’ 5가지 모듈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이나 산업계를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더불어 250개 이상의 사례를 통해 자원 활용법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Just Transition Center

기관 소개 공정전환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비영리 기구
홈페이지 <https://www.ituc-csi.org/just-transition-centre>

공정전환센터(Just Transition Center)는 2016년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이 설립한 기관으로, 공정전환 추진 시 기업, 정부, 지역사회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협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정전환 과정과 계획의 사례를 공유하고, 동료 간 기술 및 경험 공유를 촉진하며, 공정전환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노동자와 동료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정전환과 관련된 인터뷰, 동영상, 보고서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사회적 대화 과정의 모범 사례를 문서화하고, 투자자와 전문가의 참여로 노조, 지역사회, 정부, 기업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지원하고 있다. 공정전환센터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정전환과 관련된 정책, 노조 활동,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공개하여 공정전환 이행을 위한 노조 측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료들을 아카이빙하고 있다.

Impact Invest Institute

기관 소개	저탄소 경제를 위한 금융상품 기획에 도움을 주는 실무적 기준
홈페이지	https://www.impactinvest.org.uk/
참고 자료	https://www.impactinvest.org.uk/resources/publications/just-transition-criteria/

임팩트투자인스티튜트(ImpactInvestInstitute)는 공정전환과 지역기반 임팩트투자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임팩트투자인스티튜트는 2023년 5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정전환 기준(Just Transition Criteria)을 만들었다. Just Transition Criteria의 활용을 통해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실무 단계에서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 기준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 기존의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준은 4조 파운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전 세계 21개의 자산 관리자 및 자산 소유자에 의해 공동 개발되었으며, 보다 실질적인 임팩트를 지닐 수 있도록 광범위한 NGO 및 사회적 투자자의 자문을 얻었다.

특히, 이 기준은 넷제로에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금융 상품을 원활히 기획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공정전환의 핵심 요소 3가지인 '기후 및 환경 행동 증진', '사회경제적 분배 및 평등 개선', '지역사회 목소리 확장'을 상품에 담아낼 수 있는 실무적 톨로서 역할한다. 더불어 이 기준은 공정전환 핵심 요소에 부합하는 투자상품 및 솔루션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 소유자에게도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The Council for Inclusive Capitalism

기관 소개	포용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CEO 주도 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inclusivecapitalism.com/
참고 자료	https://www.inclusivecapitalism.com/just-energy-transition-home/

포용적자본주의위원회(The Council for Inclusive Capitalism)는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윤을 추구하는 CEO 주도 협의회이다. 2021년 위원회는 기업 행동을 위한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는 정부, 산업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넷제로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음 4가지 핵심 필러(Pillar)를 규정하였다.

- 1. 에너지와 넷제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지지한다.**
- 2. 저탄소 사회를 위한 에너지 인력을 개발한다.**
- 3. 공동체 회복력을 증진한다.**
- 4. 모든 과정에서 협력과 투명성을 촉진한다.**

4가지 필러는 다시 '빌딩 블록'으로 부르는 활동을 5가지씩 포함하는데, 총 20가지 블록은 각각 공정전환이 적용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관련 논의를 발전시킨다. 이 블록들은 기존 세계 벤치마킹 연합(WBA)의 공정전환 방법론, CA100+의 공정전환 지표 등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업 실무자는 세분화된 블록과 사례를 통해 공정전환에 대한 구조 및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Ceres

기관 소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지원하는 투자자 연합
홈페이지	https://www.ceres.org/
참고 자료	https://roadmap2030.ceres.org/ai-expectation/just-and-inclusive-transition

세레스(Ceres)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영향력 있는 자본시장 리더들과 협력하는 비영리단체이다. 강력한 네트워크와 투자자, 기업, 비영리단체의 글로벌 협업을 통해 행동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주주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 리스크'와 '물 리스크'를 주류 글로벌 투자 개념으로 확립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세레스는 지속 가능성을 자본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세레스는 1997년, 현재 전 세계 수만 개의 기업이 사용하는 GRI로 알려진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시작했다. 또한 투자자들을 동원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청원하여 중대한 기후 리스크에 대한 기업 보고 의무화에 관한 최초의 지침을 발표하는데 성공하고, 2015년에는 역사적인 파리협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미국 기업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다.

세레스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리더십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세레스 로드맵 2030 (Ceres Roadmap 2030)'을 만들었다. 이 로드맵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10년 실행 계획을 제공하고 있다. 세레스는 로드맵의 7대 항목에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 구축이라는 항목을 두고 세부 항목으로 공정전환을 명시하고 있다. 공정전환 항목에서 세레스는 기업이 내부 및 외부에서 주도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예: 청정에너지 전환, 자동화·AI, 자원 부족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활동 마일스톤, 이행 및 공시 방법, 관련 자료 등을 모아서 공개하고 있다.

Bankwatch Network

기관 소개	중부 및 동부 유럽에 거점을 둔 NGO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bankwatch.org/
참고 자료	https://bankwatch.org/project/just-transition

뱅크워치네트워크(Bankwatch Network)는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가장 큰 NGO 네트워크 중 하나로, 13개국 15개 회원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의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 금융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촉진하는 것이다.

뱅크워치네트워크는 공정전환이 노조, 산업계, 정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약한 파트너십, 의지 부족,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간과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개발된 것이 공정전환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유럽연합(EU) 지역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관련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회의하기 위한 공간이며, 유럽 내 시멘트·화학·철강 산업의 전환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뱅크워치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는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된 국가 단위 공정전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기관 소개	동남아시아의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자공여 파트너십
홈페이지	https://www.energytransitionpartnership.org/
참고 자료	https://www.energytransitionpartnership.org/project/just-transition/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번영 동력 제공'을 목표로 하는 동남아시아의 다자공여(Multi-donor) 파트너십이다. 정부 및 자선단체들이 결성한 다자간 협력체로서,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탄력적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적, 재정적 자원 동원을 목표로 한다.

홈페이지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정전환에 대한 현황 및 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정전환 라운드테이블'의 일정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이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정보, 지식, 노하우, 기술 등을 교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 공정전환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는 동남아시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성 개발,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대한 액세스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개별 대담 및 마스터클래스 녹화본 등이 업로드되어 있다.

World Resources Institute

기관 소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해 전 세계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비영리 기구
홈페이지	https://www.wri.org
참고 자료	https://www.wri.org/just-transitions

세계자원연구소(WRI)는 1982년에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식량, 산림, 물, 에너지, 도시, 기후 등 6개 분야에서 인류 사회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경제, 금융, 거버넌스를 위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연구하고 있다.

6개 분야에서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위험 평가를 위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시스템이 연계된 정도와 식량 불안 해결과 같은 문제를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호, 경제 안보 제공 전략과 연결하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연구하며 관련 옹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평한 기후 행동 리소스 센터를 운영하는데, 국가·지역사회·기업이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산업과 경제를 전환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팟캐스트와 스냅샷 콘텐츠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6개 대륙에 걸쳐 공정전환과 관련된 스냅샷 콘텐츠를 통해 기업의 탈탄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여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미래를 구축하는 데 국가와 지역사회를 안내할 수 있는 인사이트와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Appendix

ㄱ	개별 지원 계획(ISPs, Individual Support Plans)	7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1
	공공부문 대출 기구(Public Sector Loan Facility)	20, 32
	공정전환(Just Transition)	10
	공정전환 리소스 플랫폼(Just Transition Resource Platform)	110
	공정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15, 19, 32
	공정전환 보고서(Just Transition Report)	46
	공정전환 선언(Just Transition Declaration)	15
	공정전환 연맹(Just transition Alliance)	15
	공정전환 운용(Operationalizing a just transition)	120
	공정전환 원칙의 주류화(Mainstreaming just transition principles across CIF and beyond)	120
	공정전환 지방자치단체장 포럼(Forum of Mayors on Just Transition)	19
	공정전환 테스크포스	13, 35
	공정전환 파빌리온(Just Transition Paviliion)	16
	공정전환 펀드(Just Transition Fund)	20, 37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46
	공정전환: 투자자를 위한 5대 액션 분야(The just transition: five action areas for investors)	13
	공정전환기준(Just Transition Criteria)	122
	공정전환센터(Just Transition Center)	121
	공정전환연맹(JTA, Just Transition Alliance)	15
	공정전환이니셔티브(Just Transition Initiative)	15, 113
	공정전환펀드(Just Transition Fund)	20
	공정한 저탄소 전환(Just low carbon transition)	11
	광주시 기후 위기 대응 기본 조례	28
	괜찮은 일자리 의제(Decent Work Agenda)	118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공사(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2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120
	국제 전기 노동자 형제단 (IBEW,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72
	국제노동기구 공정전환 가이드라인(ILO 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16, 40, 118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0, 40, 51, 110, 118
	국제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10, 15, 121
	국제사용자기구(IO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15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2
	국제회계기준(IFRS) 분류법	112
	그린 리파이너리 프로젝트(Green Refinery Project)	46
	글로벌 엑서러레이터(Global Accelerator on Jobs and Social Protection for Just Transitions)	18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46
	기후 및 경제정의 선별 도구(Climate and Economic Justice Screening Tool)	22
	기후 행동 일자리 이니셔티브(Climate Action for Jobs)	15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19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120, 130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	13, 110, 117
L	내부 임직원 직무 전환 및 조직(Restructuring)	54
	노스다코타(North Dakota)	68
	녹색 일자리 보고서(Green Jobs: Towa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	15
	누겐(NuGen) 프로그램	59
E	독일 탈석탄법 및 석탄 지역 구조 강화법	34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12
	디아블로 밸리 대학(Diablo Valley College)	68
M	러브 커널 사건(Love Canal)	15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42, 54
M	마라톤 퍼트롤리엄(Marathon Petroleum)	68
	마이체인지(MyChange)	50
	머스크(Maesrk)	92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	94
	모두를 위한 공정전환 이니셔티브(Just Transition for All)	15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지침 (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	15
	무역 조정 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32
	미국 석유·화학·원자력노조(Oil, Chemical and Atomic Workers International Union)	15

	미국국제개발처(USAID)	49
	미션 파서블 파트너십(Mission Possible Partnership)	114
▣	밤빌리 에너지(Bambili Energy)	59
	뱅크워치(Bankwatch)	125
	뱅크워치네트워크(Bankwatch Network)	125
	비야디(BYD)	12
	비팀(The B Team)	110
⋈	사회적책임을위한 비즈니스(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112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26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5
	서던 컴퍼니(Southern Company)	72
	서버너 항구 항만 확장 프로젝트	73
	석유·화학·원자력노조(OCAW, Oil, Chemical and Atomic Workers International Union)	15
	석탄 지역 전환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Coal Regions in Transition)	19
	선셋 파크 TF(Sunset Park TF)	64
	세계 벤치마킹 연합(World Benchmarking Alliance)	42, 115, 123
	세계 지속 가능 발전 기업위원회(WBCSD)	116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82, 114
	세계자원연구소(WRI)	127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16
	세레스 로드맵 2030(Ceres Roadmap 2030)	124
	세레스(Ceres)	93, 124
	소수자 혹은 여성 소유 기업	36
	(MWDBE: Minority, Women-Owned and 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s)	
	시민 혁신 플랫폼(Citizen's Innovation Platform)	66
	실레지아 선언(Solidarity and Just Transition Silesia Declaration)	12, 15
○	아메리칸배터리팩토리(American Battery Factory)	96
	아메리코 봉사단(AmeriCorps)	22
	알리바바(Alibaba)	103
	애팔래치아 지역 위원회(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	22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58
에너지 전환 위원회(Energy Transitions Commission)	114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126
에넬 그린 파워(Enel Green Power)	56
에넬(Enel)	56
에니 기업대학(ECU: Eni Corporate University)	50
에니(Eni)	46
에리어링 화력발전소(Eraring Power Plant)	70
에퀴노르(Equinor)	36, 44, 63
에퀴노르 해상풍력 생태계 펀드(Equinor Offshore Wind Ecosystem Fund)	36
엠펜더 윈드(Empire Wind)	64
오리진 에너지(Origin Energy)	45, 70
오리진에너지 지역사회 지원 위한 커뮤니티 펀드 (Origin Energy Community Investment Strategy)	36
오케스트라 파트너스(Orchestra Partners)	7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19
올람 아그리(Olam Agri)	90
울산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30
월마트(walmart)	101
위민비즈니스연합(We Mean Business Coalition)	110, 114
유럽 그린딜 투자 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1519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19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20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13
유엔개발 계획(UNDP)	49
유엔글로벌compact(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49, 51, 110, 119
유엔기후변화협약(COP)	12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49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15
유인타 베이슨 테크니컬 대학(Uintah Basin Technical College)	68
육군 공병단(Army Corps of Engineers)	22
은행국제연합(GABV, 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91
이베르드롤라(Iberdrola)	45, 66

	이사회를 위한 공정전환 가이드(The Chairperson's Guide to a Just Transition)	82
	이탈리아개발협력기구(AICS)	49
	인간 중심의 친환경 회복(Human-centred Green Recovery)	18
	인베스트EU(InvestEU)	20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22
	임직원 협력을 위한 구성원 원칙(People Principle for Cooperation)	94
	임팩트 투자 인스티튜트(Impact Investing Institute)	122
ㄨ	잡포유(Job4U)	50
	저스트 트랜지션(Just Transition)	25, 32
	저스티스40(Justice40)	22
	전 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102
	정의로운 전환 특별 지구	28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조례	28
	지속 가능 개발위원회(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115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FastTRAX Engineering Technology Career Academy)	68
	지역 재생에너지 생태계(Regional Renewable Energy Ecosystem)구축 사업	59
	지역사회 참여 전략(Community Engagement Strategy)	71
ㄸ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RMI)	114
	청렴성 실사 (IDD, Integrity Due Diligence)	36
	청정발전계획(CPP, Clean Power Plan)	33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프로그램(Clean Energy Incentive Program)	33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5대 전략 및 30대 과제	30
ㅋ	캐나다 석탄 전환 이니셔티브(CCTI, Canada Coal Transition Initiative)	35
	캐나다 석탄화력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공정전환 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Just Transition for Canadian Coal Power and Communities)	35
	커뮤니티 보드 7(Community Board 7)	64
	커뮤니티 투자 전략(Community Investment Strategy)	36
	케슬러 컬렉션(Kessler Collection)	72
	크라프트 발전소(Plant Kraft)	72

■	타깃 제로 이니셔티브 (Target Zero Initiative)	99
	탄광 폐쇄 툴박스 (Toolbox)	59
	탄소중립 전문 기관(Maersk Mc-kinney Center for Zero Carbon Shipping)	9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1, 24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연맹(Getting to Zero Coalition)	92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10, 15
	파워 이니셔티브 (POWER Initiatives)	17, 21, 23, 30, 33, 37
	퍼스트무버연합(First Movers Coalition)	92
	포용적자본주의위원회(Council for Inclusive Capitalism)	47, 123
	퓨처(Fu-tur-e) 프로젝트	56
	프로젝트 기가톤(Project Gigaton)	101
	프로젝트 드로다운(Project Drawdown)	88
ㅎ	해상풍력 생태계 펀드(Offshore Wind Ecosystem Fund)	36
	흑인 경제 육성(BEE, Black Economic Empowerment) 정책	59
A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24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110
	CA100+(Climate Action 100+)	13, 110
	EDF(Électricité de France)	58, 60
	EDP A2E 펀드(EDP A2E Fund)	35
	EDP(Energias de Portugal)	35
	G20 에너지 전환 실무 그룹(Energy Transition Working Group)	12, 13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46
	HR 탈석탄팀(HR Coal-Phaseout team)	55
	RWE(Rheinisch-Westfälisches Elektrizitätswerk)	54
	SSE(Scottish and Southern Energy)	51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2, 115

공정전환 플레이북
JUST TRANSITION
PLAY BOOK

넷제로의 '보이지 않는 청구서'

발행일
2023년 12월 22일

지은이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www.cses.re.kr

기획
박영주 (사회적가치연구원 ESG협력팀 팀장)
최소연 (사회적가치연구원 ESG협력팀 책임연구원)

집필·자문
임팩트는 www.impacton.net/
박란희 (대표&편집장)
김환이 (리서치팀장)
이재영 (선임연구원)
송선우 (선임연구원)
김세진 (연구원)
이상아 (객원연구원)
박지원 (객원연구원)

디자인·편집·출판
파라프로젝트
www.paraproject.net
민소연 (에디터)
심해진 (디자이너)

인쇄
영은문화(주)

ISBN: 979-11-979214-2-1(13320)

CSES연구총서

CSES연구총서 ①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최유경·정아름 저

2021.08.26

CSES연구총서 ②

사회적 가치의 시대, 집합적 임팩트가 답이다

장용석·조희진·황정윤·손선화·유두호 저

2022.01.27

CSES연구총서 ③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ESG 이야기

나석권 지음, SUE PARK·SOWON·최정우 그림.

2023.04.25

CSES연구총서 ④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라준영·오준환·유미현·정솔·옥현민 저

2023.08.31

CSES 발간자료

실무자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측정 가이드북

Impact Foundation Position Paper -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 SV Hub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svhub.co.kr/>

